

한국십진분류표 300: 사회과학

2024년 《오늘의 도서관》에서는 책의 이름표이자 주소인
한국십진분류표에 맞춰 각 분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달의 주제는 한국십진분류표 300, '사회과학'입니다.

통계자료, 경제학, 사회학·사회문제,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 관련 도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열다





도서관과 오늘 깨어 있는 시민으로 이끄는 나침반, 사회과학	04
주목! 이 도서 사회과학 분야 1위 도서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08
도서관 산책 사회과학 속 통계로 보는 요즘 도서관	10

오늘의
도서관

발행일 2024년 4월 30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배명희, 손효림, 이은경, 한숙희
편집 박정연 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23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5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https://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https://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brary1004>](https://blog.naver.com/dibrary1004)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https://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표지 이야기 / 일러스트 **민지홍**
《오늘의 도서관》5월호 주제는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 분야입니다.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책을 통해 알아가기도 하고 직접 경험하며 배우기도 하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책을 섞어 그 복잡함을 표현했습니다.

도서관을 만나다

사서 큐레이션 행복과 감사의 달, 5월의 추천 도서	14
오늘의 만남 책을 가까이하며 사람에 대해 공부합니다 미술사 최현우	18
꿈을 이루는 도서관 중장년의 자신감을 되찾아드려요 ‘소금나루도서관’	22
보물을 찾아서 토론토대학교 도서관(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과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 초판	26
도서관 트렌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서관의 위기일까? 기회일까?	30

서재를 걷다

문헌의 가치 《자산어보(玆山魚譜)》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	34
문학상 읽기 무에서 무로, 그것이 살아가는 과정이다 윤 포세 《아침 그리고 저녁》	38
나를 바꾸는 독서 팀 마샬 《지리의 힘》 이토록 전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42
숫자로 보는 테마 랭킹 화목한 가정을 위해 어떤 책을 읽을까? ‘최근 3년간 가정과 관련한 인기 도서 분석’	46
똑똑한 독서 생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의 보고(寶庫), ‘사회과학(300)’	48

함께 나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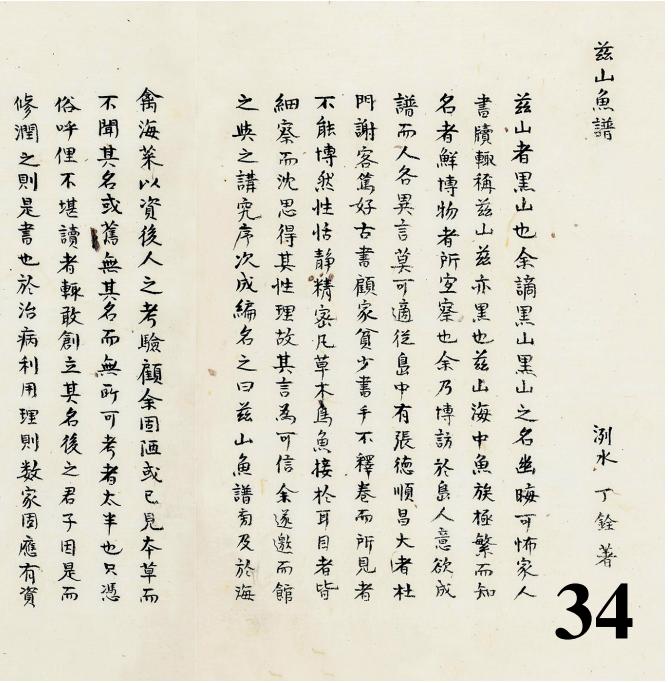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2
국내외 도서관 소식	56
한 장의 감성	5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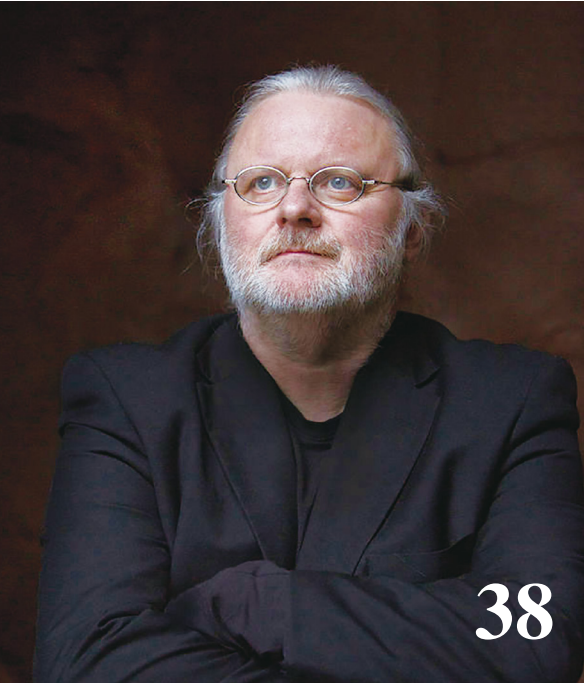
26



玆山魚譜

溯水 丁銓 著

3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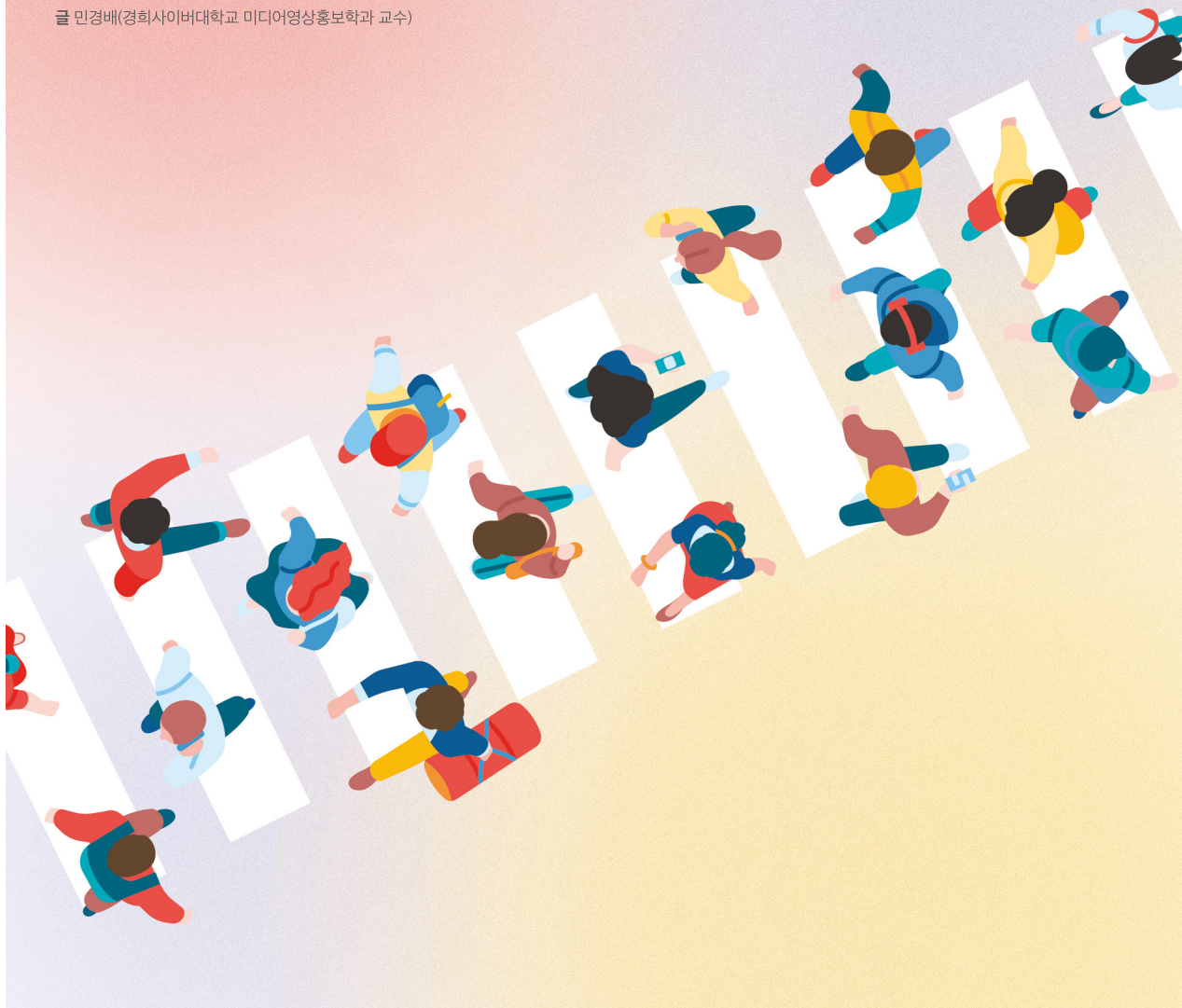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 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

깨어 있는 시민으로 이끄는 나침반, 사회과학

미술, 수학, 의학, 건축학, 과학 등 다방면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요즘 융합 지식인으로 자주 소환된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코페르니쿠스도 융합 지식인의 반열에 오를 만한 인물이다. 그는 천문학자이자 성직자였으며 동시에 의학과 법학 분야에 걸쳐 폭넓게 활동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붙여지는 융합 지식인이란 호칭은 개별 학문 단위 체제에 익숙해진 현대인이 만들어낸 후대의 발명품일 뿐이다. 당시만 해도 개별 학문의 경계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경계 구분이 없었으니 당연히 융합할 일도 없었다.

글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000 종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	-----------	-----------	-------------	-------------	-------------	-----------	-----------	-----------	-----------

한국십진분류법(KDC)의 사회과학이란?

도서관의 자료 주제를 열 가지로 구분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오늘의 도서관'을 살펴본다. 네 번째 분류인 사회과학에는 통계자료, 경제학, 사회학·사회문제, 정치학 등이 해당된다.

사회과학이 학문에서 분화된 이유

원래 학문 세계에 문과와 이과 구분은 없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 오늘날 흔히 철학자라고 통칭되는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지식인 대부분은 사상가이자 동시에 과학자였다. 이들에게 학문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의 본질과 원리를 탐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장대하고 종합적인 지적 과정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중세 말까지 계속 이어졌다.

학문의 분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였다. 근대혁명은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사회는 한층 복잡해졌고, 과학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며, 아울러 지식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아무리 비범한 천재라도 한 개인이 이 모든 것을 오히려 감당할 지적 능력을 갖추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불가피하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이 분화했다. 각각의 학문 영역은 다시 내부에서 보다 세분화된 단위로 쪼개졌다.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사회의 다원화 추세에 따라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언론학, 교육학, 통계학, 여성학, 인류학, 민속학, 군사학 등 폭넓은 분과 학문들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등장한다. 왜 사회과학은 인문학과 달리 자연과학처럼 '과학'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사회현상 연구도 과학이다

그 해답은 사회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로부터 찾을 수 있다. 콩트는 프랑스혁명 이후 엄청난 변화와 혼동을 거듭하고 있는 당시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의 연구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험적 관찰과 객관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 방법을 통해 나름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콩트는 사회를 일종의 생물학적 유기체로 규정하는 사회유기체설을 창시했다. 또한 중세에서 근대로의 대전환도 거대한 사회법칙의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발전 단계설을 정립했다. 사회현상을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는 콩트의 혁신적인 제안은 오늘날의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하다. 가설을 설정하고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사회적 사실과 법칙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모든 개별 학문이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연구 절차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찰, 실험, 계량적 분석 등 자연과학과 유사한 연구 방법이 사회과학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성찰과 사유, 상상력이 필요한 과학

물론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처럼 늘 확실하고 필연적인 법칙만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현상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며, 인간의 의지란 보편적 법칙보다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에는 자연과학에서의 ‘과학’뿐 아니라 인문학에서 중시하는 ‘성찰’과 ‘사유’도 필요하다. 실증적 자료로 표면에 드러난 사실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보다 근원적인 구조나 원리를 파악하고, 이것이 인간의 가치관과 사회현상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방법론이 아닌 성찰과 사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라이트 밀스(Charles Wright Mills)는 이러한 능력을 ‘사회학적 상상력’이라 불렀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다시 ‘역사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 ‘비판적 상상력’으로 구분했다. 역사적 상상력은 특정한 사회현상과 관련한 역사적 요인들의 변화 과정을 종단적으로 상상하는 것, 인류학적 상상력은 특정한 사회현상을 다양한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횡단적으로 상상하는 것, 비판적 상상력은 특정한 사회현상을 익숙한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을 통해 전복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사회현상과 맞닿아 있는 사회과학

사회과학이 매력적인 것은 이처럼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강점을 두루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의 엄격한 과학적 절차, 그리고 인문학의 깊이 있는 성찰과 사유에 기초한 상상력을 양 날개 삼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이다. 과학사회학이나 의료사회학처럼 자연과학 영역과 결합한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 분야도 있다. 마음이나 감정, 죽음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인문학 주제도 사회과학 연구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한편, 사회과학 영역에 다양한 분과 학문 체계가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매력 요소이다. 동일한 사회현상이라도 어떤 분과 학문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시사점을 준다. 가령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저출산 현상도 개별 분과 학문에 따라 진단과 해법이 달라진다. 경제학은 출산 지원금의 효율적인 편성과 배분, 사회학은 가정 내 돌봄 노동의 공평한 분담, 교육학은 보육 체계의 안정적 확충에 강조점을 둔다. 이와 같이 사회과학 내 분과 학문이 제공하는 다양한 진단과 풍성한 해법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직면한 여러 현안과 과제를 극복하며 발전해 왔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사회과학

정보통신, 인공지능, 양자역학 등 첨단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경험하면서 과학 도서들의 출판이 늘어나고 있다. 팍팍한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갈수록 무거워지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길을 찾고자 인문학 도서를 뒤적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틈새에서 사회과학 도서의 지평은 애석하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 이면에서 작동하는 여러 세력 집단들 간 역학 관계와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를 간과한다면 그저 기술 종속적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불투명성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과학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 준다. 설령 인문학적 지혜를 통해 개인적인 행복과 평안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해도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회구조의 온갖 압력으로부터 진정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외치며 사회와 단절하고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그가 사용하는 최소한의 기초 도구들은 사회적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회과학적 관점이 결여된 과학기술은 위험하며, 사회과학적 지식이 결여된 인문학은 공허하다.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온갖 난관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싶다면 사회과학 도서를 읽어야 한다.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곧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면 당연히 사회과학 도서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의 물결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 방안도 역시 사회과학 도서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과학은 당신을 깨어 있는 시민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❶

민경배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정보사회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처음 만나는 사회학》, 《SF영화와 로봇 사회학》 등이 있다.

사회과학 분야 1위 도서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공정 세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얼핏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를 표현하는 말일 수 있겠다. 요즘은 이처럼 능력주의 차원의 공정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있다. 독자들이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이하 《공정하다는 착각》)라는 책을 집어 드는 이유일 것이다.

글 김현식(문화평론가) 사진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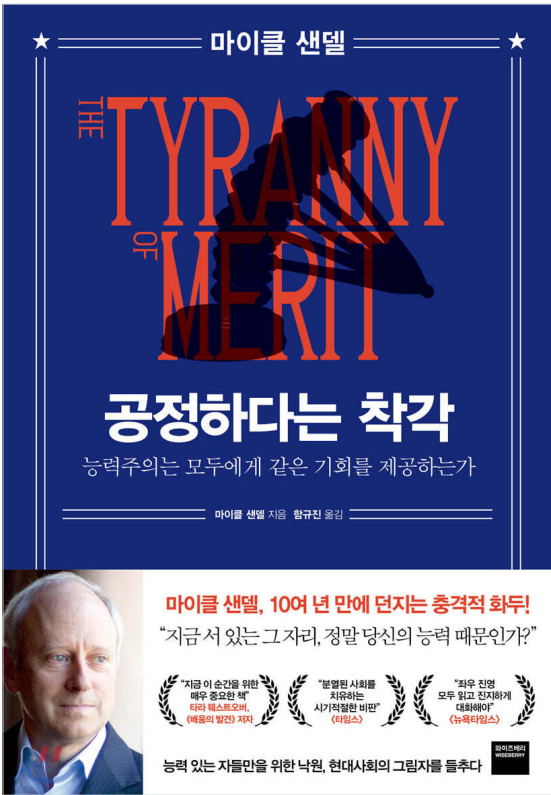
<사회과학 분야 도서 대출 순위>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1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와이즈 베리	2020
2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음	창비	2019
3	《팩트폴니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관참은 이유》	한스 로슬링·올라 로슬링·안나 로슬링 지음 이창신 옮김	김영사	2019
4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지음 임상훈 옮김	현대지성	2019
5	《시대에보: 핵개인의 시대》	송길영 지음	교보문고	2023

* 대출 순위 조사 기간: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아동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능력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원한다

마이클 샌델의 이 책은 이른바 ‘공정 세대’가 말하는 공정(公正)에 대해서 날카롭게 그 한계를 논파하고 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인데 우리말로 옮기자면 “능력주의의 폭정: 무엇이 공공선인가?” 정도가 될 것이다.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주의, 즉 성과와 업적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혈연, 지연, 학연, 부유함 등 공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진학, 고용, 승진, 지위 배분 등이 이뤄지는 사회적 풍토의 반대 개념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능력주의는 정당한가

하지만 능력주의와 실적주의는 또 하나의 특정한 도그마(Dogma,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를 형성한다. 상대적인 관점을 배제하기는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시절의 학업 성취가 평생을 좌우하는 사회적 구조가 강하므로 더욱 그럴 수 있다. 예컨대, 그들에게는 성적순으로 모든 사회적 지위와 권력, 부가 배분된다는 생각이 옳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쉽게 한계가 드러난다. 각 개인의 상황과 조건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부유한 집의 자제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 환경을 접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일찍부터 갖춰지는 것이다. 갈수록 한국 사회는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기에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비등해졌다.

능력주의의 모순과 역설

능력주의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힘과 부를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이른바 승자독식의 배경은 능력주의자의 지배를 강화하게 된다. 능력 많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해 된다는 비정상적인 인식을 강화한다. 그런데 과거의 능력이 과연 미래에도 유효한지는 알 수 없다. 미래의 변화무쌍한 위기와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스펙이 스펙을 낳는 사회는 자칫 큰 실패를 겪을 수 있다. 갈수록 미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위험성은 가중되고 있다. 어쩌면 한 번도 기회

가 주어지지 않은, 아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이들에게서 새로운 대안이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 가운데 하나는 능력이 있으면 성공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능력과 성공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소설이나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일들일 것이다. 사업에 성공한 기업가가 다른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지 알 수 없다. 소설이나 영화를 히트시킨 창작자도 다음 작품이 또 그렇게 인기를 끌지 알 수 없다. 최고 우등생이 가장 뛰어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천하의 명장 이순신도 12등으로 과거시험에 합격했으며, 모든 과목에서 우수했을 것 같은 아인슈타인도 낙제 과목이 있었다.

오래된 화두, 공정성과 능력주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맥락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처음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불안》(정영목 옮김, 은행나무, 2011)이라는 책에서 이미 ‘능력주의’를 언급했다. 그는 이 책에서 현대인은 3가지 불안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능력주의였다. 능력이 없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책에서 잘 보여준다. 이런 불안 상태에 있으면,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간과하게 한다. 다만,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능력주의의 모순과 역설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 매우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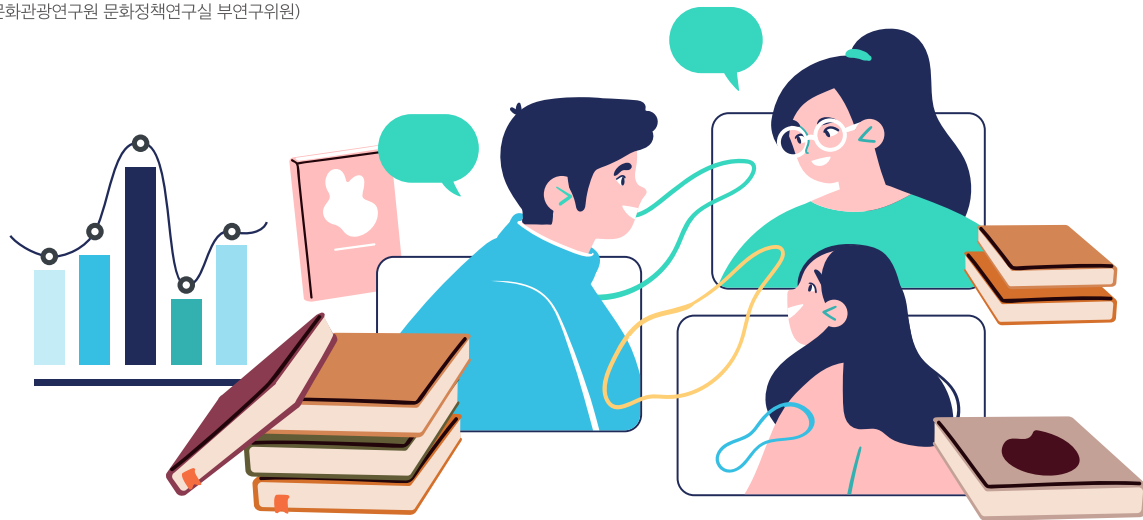
《공정하다는 착각》을 많은 독자가 찾는 것은 공정성의 모순에 대한 공감대가 한국에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능력에 대한 절대적 요구는 결국 승자와 기득권에 의해 강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단편적이고 간헐적인 논지를 넘어 체계적으로 접근해 주기 때문이다. ⑥

김현식 ·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중원대학교 특임교수이자 미래학회 연구학술인이며, 대표 저서로는 《문화로 읽는 세상》이 있다.

사회과학 속 통계로 보는 요즘 도서관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지식 확산과 평생교육의 장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공동체적 공간이자 각종 만남의 장소이며, 사회적·문화적 자본 형성의 장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도 거듭나고 있는 도서관의 최근 5년간 현황은 어떨까. 요약하자면 도서관 수, 장서 수 등 공급 측면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1관당 방문자 수, 1관당 대출 도서 수 등 수요 측면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반 여건 조성¹과 함께 도서관 방문자와 이용자의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대처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이경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확인1.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수는 늘었지만, 병영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수는 줄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도서관 수는 총 2만 2,749개 관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서관 수는 2018년 2만 2,104개 관, 2019년 2만 2,512개 관, 2020년 2만 2,385개 관, 2021년 2만 2,372개 관이다. 2018년 대비 2022년은 2.9% 증가했다(표 1 참조). 이 중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5년간 꾸준히 증가한 반면, 병영도서관, 장애인 도서관은 2018년 대비 각각 13.2%, 27.3% 감소했다.

표 1 최근 5년간 전국 도서관 수(2018~2022)

(단위: 년, 개 관, %)

구분	국립	공공	작은	대학	학교	전문	교도소	병영	장애인	합계
2018	3	1,096	6,330	461	1만 1,625	609	52	1,884	44	2만 2,104
2019	3	1,134	6,672	459	1만 1,678	612	52	1,855	47	2만 2,512
2020	4	1,172	6,474	460	1만 1,744	620	52	1,812	47	2만 2,385
2021	6	1,208	6,448	459	1만 1,787	615	52	1,765	32	2만 2,372
2022	7	1,236	6,899	458	1만 1,813	615	53	1,636	32	2만 2,749
2018 대비 2022 증감률	133.3	12.8	9.0	-0.7	1.6	1.0	1.9	-13.2	-27.3	2.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2022) 문화예술정책백서》 참고하여 재구성함.

확인2. 공공도서관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주요 국가보다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과 호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1관당 인구수는 2022년 기준 4만 1,617명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표 2 참조). 이는 독일의 3.4배, 호주의 2.7배에 해당한다(반면, 1인당 장서 수는 우리나라가 호주와 독일보다 각각 1.5배, 1.9배 많다). 즉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는 아직 주요 국가보다는 부족한 형편이다.

표 2 주요 국가별 도서관 수, 1관당 인구수, 1인당 장서 수

(단위: 년, 개 관, 명, 권)

국가	연도	도서관 수	1관당 인구수	1인당 장서 수
한국	2022	1,236	4만 1,617	2.4
미국	2021	9,207	3만 5,687	2.0
호주	2021~2022	1,706	1만 5,210	1.6
독일	2021	6,779	1만 2,304	1.3
일본	2022	3,305	3만 8,322	3.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문화예술정책백서》, 623쪽

**1관당 인구수: 전체 국민 수/도서관 수, 장서 수: 인쇄 자료(도서)

확인3.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공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수, 1인당 장서 수, 사서 직원 수, 운영예산, 회원 등록자 수 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관당 인구수는 점차 줄고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대비 2022년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은 운영예산과 사서 직원 수로 각각 27.5%와 20.1%가 증가했다(표 3 참조).

표 3 최근 5년간 공공도서관 현황(2018~2022)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대비 2022 증감률
공공도서관 수(개)	1,096	1,134	1,172	1,208	1,236	12.8
1관당 인구수(명)	4만 7,287	4만 5,723	4만 4,223	4만 2,747	4만 1,617	-12.0
1인당 장서 수(책)	2.13	2.22	2.29	2.34	2.38	11.7
도서(인쇄) 수(1,000권)	1억 1,033만	1억 1,507만	1억 1,850만	1억 2,094만	1억 2,260만	11.1
직원 수(명)	9,105	9,503	9,384	10,160	10,611	16.5
사서 직원 수(명)	4,792	5,090	5,292	5,365	5,756	20.1
운영예산(100만 원)	1조 701억	1조 1,470억	1조 2,273억	1조 2,501억	1조 3,648억	27.5
회원 등록자 수(명)	2,575만 7,652	2,666만 2,398	2,718만 8,944	2,737만 3,132	2,918만 3,071	13.3
1관당 방문자 수(명)	25만 3,464	25만 804	7만 6,431	11만 5,016	14만 2,160	-43.9
1관당 대출 도서 수(권)	11만 5,990	11만 7,962	10만 449	11만 768	11만 1,824	-3.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문화예술정책백서》, 624쪽

**직원 수 및 사서 직원 수는 정규 직원에 한함, 운영예산은 인건비, 자료 구입비, 운영비를 포함하며, 결산액 기준임

확인4.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의 격차가 크다.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도서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약 25%에 해당하는 309개 관의 도서관이 있다¹. 반면, 공공도서관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전체의 약 1.2%에 해당하는 15개 관의 도서관이 있다. 한편 1관당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부산, 대전, 울산, 대구,

1 전국의 공공도서관 위치 및 현황 정보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내 '전국 공공도서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libsta.go.kr/board/map).

광주 순이고, 반대로 1관당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강원, 전남, 세종 순이다. 즉 부산, 대전 등의 지역은 인구 수 대비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적고, 강원과 전남 등의 지역은 인구수 대비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많다.

〈표 4〉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2022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공공도서관 수(개)	199	51	44	58	27	25	20	15	
1관당 인구수(명)	4만 7,329	6만 5,055	5만 3,720	5만 1,161	5만 3,002	5만 7,843	5만 5,533	2만 5,573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도서관 수(개)	309	61	54	62	66	73	71	79	22
1관당 인구수(명)	4만 3,762	2만 4,893	2만 9,538	3만 4,243	2만 6,812	2만 4,900	3만 6,486	4만 1,525	3만 82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문화예술정책백서》, 624~625쪽

확인5. 정부는 특화도서관 육성,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현재까지 약 58개의 도서관을 지원하였다². 또한 전 국민의 정보문화향유권 신장과 도농 간 문화 및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147개 관의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을 수행하였다³. 이 밖에도 도서관을 방문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생활 반경 안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이나 주민센터 등에 ‘무인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해 도서 이용 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⁴. 2024년 현재 전국에 총 150개소가 구축돼 있다.

확인6. 인프라 확충과 함께 도서관 이용자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의 〈표 3〉에서와 같이 최근 5년간 도서관 수, 장서 수 등 도서관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는 증가한 반면, 1관당 방문자 수, 1관당 대출 도서 수 등 도서관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발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통신기술 혁신에 따른 정보와 지식의 실시간 교류 증대 등에 따라 종이, 인쇄물, 필름 등에 보관되는 지식과 정보를 전자자료가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도서관 이용 및 방문의 목적을 소장 자료와 시설 이용에서 문화 프로그램, 평생교육, 만남과 휴식, 동호인이나 동아리 활동 공간, 자원봉사의 장, 사이버 활동의 장으로 다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도서관은 방문자와 이용자의 이 같은 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더욱 다양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⁵. ❶

² 김홍규 외,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조성·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52~53쪽의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

³ 문화체육관광부, 《(2022) 문화예술정책백서》, 628쪽

⁴ 문화체육관광부, 《(2022) 문화예술정책백서》, 632쪽

⁵ 이경진, 〈공공도서관 방문자수 및 자료실이용자수에 미치는 영향요인: 2018년 전국도서관통계를 바탕으로〉(《한국문헌정보학회지》54(2), 한국문헌정보학회, 2020, 105~125쪽의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

이경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정책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 사업과 〈공공도서관 고객 규모의 영향요인에 대한 시계열분석〉, 〈공공도서관 방문자수 및 자료실이용자수에 미치는 영향요인: 2018년 전국도서관통계를 바탕으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14 **사서 큐레이션**
행복과 감사의 달, 5월의 추천 도서

18 **오늘의 만남**
책을 가까이하며 사람에 대해 공부합니다
마술사 최현우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중장년의 자신감을 되찾아드려요
‘소금나루도서관’

26 **보물을 찾아서**
토론토대학교 도서관(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과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 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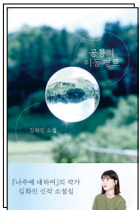
30 **도서관 트렌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서관의 위기일까? 기회일까?



도서관을 만나다

행복과 감사의 달, 5월의 추천 도서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국내 문학

공룡의 이동 경로

김화진 지음
스위밍쿨 | 2023

“삶을 편집할 순 없어. 묵묵히 봐야 해.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아프지만. 한번 아픈 곳이 계속 아플까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된 거겠지.”(168쪽)

누군가와 멀어질 때만큼 마음의 움직임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또 있을까? 김화진의 연작 소설 《공룡의 이동 경로》는, 내 것이지만 좀처럼 내 것이 되지 않는 마음의 이동 경로를 가만히 관찰하여 보여주는 다섯 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작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글 쓰는 소모임을 진행하며 서로의 마음을 제각각의 방향으로 키운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는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모두 옳은 줄 아는 좁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강한 사람, 신중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고독하지만 묵묵히 이동하는 가상의 공룡을 등장시켜 숨겨진 마음을 나타낸다. 이유도 모른 채 가까워지고 또 한순간 소원해지는, 익숙하지만 어려운 친구 사이. 세밀한 감정을 짚고 나누어 탁월하게 관찰하고 있는 소설이다.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치렀다면, 이 소설을 읽으며 나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빛깔인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 저자 소개

김화진 202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나주에 대하여>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나주에 대하여>가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정대건·임현석·서고운·이유라·이서수·김화진 | 2022

《소스 리스트, Vol. 2》

고민형·김리운·김종연·김화진·배시은·성다영·장희원·정재율·최재원 | 2023

《내·색[내色]: 감정에 색을 입히다》

이수진·고미진·박혜영·박선경·최병찬·김별 | 2023



국외 문학

좋은 엄마 학교

제서민 찬 지음 | 정혜영 옮김
허블 | 2023

“포옹에 분노가 실려 있기 때문에 프리다는 나쁜 엄마다. 애정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나쁜 엄마다. 이제 12월인데, 그녀는 아직 포옹 절차를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했다.”(197쪽)

《좋은 엄마 학교》는 일종의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첨단기술을 동원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엄마 역할’에까지 깊숙이 개입하여 ‘나쁜 엄마’들을 양산해 내며 ‘좋은 엄마’의 기괴한 이상을 강요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남편과 이혼 후 안정적이지 못한 일터에 전전긍긍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주인공 프리다는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잃고 ‘좋은 엄마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교도소를 연상케 하는 이 학교는 엄마를 교화시키는 학교로, 자신의 자녀와 유사한 인공지능 인형을 대상으로 엄마 역할을 실습하게 한다. 프리다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딸을 만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5분 안에 우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같은 것이다. 과연 프리다는 이 학교교육을 무사히 통과하고 딸을 만날 수 있을까? 가상의 미래를 묘사한 소설이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엄마들에 대한 높은 기준, 완벽에 가까운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소설을 읽으며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위해 개인과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면 어떨까?

✎ 저자 소개

제서민 찬(Jessamine Chan) 브라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논픽션 리뷰 편집자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데뷔 소설 《좋은 엄마 학교》는 미국 <뉴욕타임스>, <뉴요커>, <타임스> 등 주요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며 큰 찬사를 받았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오은영 | 2020

《나는 오늘도 너에게 화를 냈다》 최민준 | 2020

《조선미의 현실 육아 상담소》 조선미 | 2023



인문예술

출근하는 책들

구재은 지음
파지트 | 2023

“책은 우리 내면의 얼음을 깨는 도끼”라는 말을 믿는다. 도끼를 하도 맞아서 풍화되고 침식되다 못해 포슬포슬한 모래 알갱이가 된 독자 한 명이 여기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도끼로 맞고, 자기 갱신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 과정을 통해 지켜야 하는 진지함과 엄정함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우리는 범속해지지 않은 채, 정글 같은 일터에서 고유성과 개성을 지키면서 단독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231쪽)

우리는 읽는, 그리고 일하는 인간이다. 일터에서 끊임없이 이 2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의 의미와 보람 대신 지금의 관성과 체념만이 남아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인간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문, 기획안, 업무 메일 읽기를 제외한 자발적 읽기가 어떻게 일터의 관성과 체념을 지우고, 의미와 보람을 불러오는지 말하고 있다. 일터에서 만난 타인 때문에 고민했거나 자기 자신 때문에 외로웠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읽을 만한 책들을 일화와 함께 가볍게 소개한다. 일과 인간관계에서의 괴로움, 인정 욕구나 매너리즘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낼 수 있게 적절한 책을 처방하는 격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인간 실격》과 《명상록》에서 자신의 마음을, 《우신예찬》에서 타인의 뜻을,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서 일의 의미를,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존재의 무게를 가늠하며 읽어보자. 그 사소한 읽음이, 고민하고 외로워하는 우리가 일터에서 다시 한번 뿌리내리도록 도울 것이다.

✎ 저자 소개

구재은 1985년생으로, 서강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다. <아시아경제> 정치부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문학과 예술, 심리학에도 꾸준히 관심을 두고 관련 활동을 해왔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출근길엔 니체, 퇴근길엔 장자》 필로소피 미디어 | 2022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전홍진 | 2023

《나를 알고 싶어서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김수영 | 2023



인문예술

혼자가 좋지만 고독사는 걱정입니다

몬가 미오코 지음 | 구수진 옮김
반니 | 2023

“죽음에 대한 준비는 나이 들에 대한 준비이고, 나이 들에 대한 준비는 생에 대한 긍정이다.”(248쪽)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책은 중년이 된 저자가 자신의 죽음이 타인에게 부담되는 상황을 우려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실용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책을 읽으며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쉽게 상상되지 않겠지만 죽음을 거듭 떠올릴수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노랫말처럼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듯 우리 대부분은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기 일쑤이다. 언제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자가 보여주는 섬세한 준비와 실천적 행동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게 하며, 이는 곧 지금 삶의 완성이 된다. 혼자 살 수는 있어도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저자의 말을 다시 떠올리며, 웰다잉을 위해 오늘부터 저자가 제시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떨까?

✎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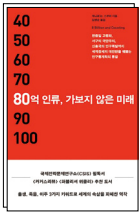
몬가 미오코(門賀美央子) 문학평론가이자 작가. 주로 문학이나 종교, 미술 분야를 다루며 관련 서적과 잡지에 글을 쓴다. 1971년 오사가 태생으로 죽음과 맞닿은 이야기를 꾸준히 풀어내 《문호의 죽음처럼(文豪の死に様)》, 《흥미로운 요괴도감(ときめく妖怪図鑑)》 등을 썼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김새별 | 2015

《고독사 워크숍》 박지영 | 2022

《죽음을 배우는 시간》 김현아 | 2020



사회과학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

제니퍼 D. 스쿠바 지음 | 김병순 옮김
흐름출판 | 2023

“인구의 변동 추세를 해석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계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역학관계를 통찰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은 우리에게 평화와 분쟁, 경기 호황과 침체, 심지어 문화의 순환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제공한다.”(32쪽)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인구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인구 80억이 넘는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의 보고일까? 아니면 전례 없는 문제의 장일까?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세계 인구 변동의 흐름을 인구 통계학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자인 저자의 시각을 통해 전 세계의 인구 동향을 다루며, 다양한 인구 문제와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와 감소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탐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와 자원 부족 문제 등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다양한 나라의 통계와 사례를 보여주며 인구학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자는 인구 통계학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창”이라고 말한다. 인구 통계를 통해 과거의 정치, 사회, 경제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보다 정확하고 성공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저자 소개

제니퍼 D. 스쿠바(Jennifer D. Scuibba) 로즈칼리지 정치학 종신교수이자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위원, 인구참조국 이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뛰어난 연구 성과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정계에서 정치인구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불린다. 저서로 《전쟁의 미래상》이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피터 자이한 | 2023

《이주하는 인류》 샘 밀러 | 2023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

조영태·장대익·장구·서은국·허지원·송길영·주경철 | 2019



사회과학

우세한 책들

장윤미 지음
사람in | 2023

“(가난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임에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는 엄격하다 못해 잔인하다. ‘못 배워서’, ‘부모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키워서’, 하타못해 ‘지 팔자 지가 꼬아서’라는 말도 가난의 이유가 된다.”(201~202쪽)

책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저자에 따르면 그렇다.

이 책에 소개된 27권의 책을 보면 우리 사회가 보인다. 작가는 사회학, 인문학, 에세이, 소설 등 다양한 분야와 장르의 책을 통해 사회적 통념을 파헤치며 우리 사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차별, 독박 돌봄, 사회적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낸 가난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계와 문제를 다루면서도 희망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루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인간임을 쓰고, 타인을 향한 슬픔과 연민을 거두지 않으며,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사람들이 숨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가 통찰하는 세상의 어려움과 한계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면 어떨까? 책 읽기가 가진 적극적인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장윤미 문화평론가. 인하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칼럼을 게재했고 공저로 《문화, on&off 일상》, 《문화, 정상은 없다》, 《문화, 공동체를 상상하다》 등이 있다. 2021년 강원문학 신인상 소설 부문에 당선되어 소설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 이길보라 | 2023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강지나 | 2023

《나의 독박 간병 일지》 미아오 | 2023



자연과학

과학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김유항·황진명 지음
사과나무 | 2023

“사실 인류의 생활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는 엄청난 발견이나 발명은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무엇이 되었든 지나친 남용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온다.”(207쪽)

인류에게 충격파를 던져주며 챗GPT가 등장했다. 인공지능이 일상에 스며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류를 뛰어넘는 초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시는 과연 혜택이 될까? 아니면 재앙이 될까?

저자는 챗GPT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답은 인문학에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니콜라 테슬라와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 간에 벌어졌던 악의적이고 복수에 찬 전쟁 사례를 담은 과학계 라이벌의 숨은 이야기, 고난을 딛고 과학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유명한 가족 과학자들, 과학자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과학자의 윤리, 천재 과학자들의 독특한 생애 등 총 4가지 주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의 인생과 사상, 내면 등 과학자들의 인간적 면모를 흥미롭게 풀어내어 챗GPT 시대에 인간성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을 통해 과학자들의 고뇌와 열정, 헌신이 긴 삶을 살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 저자 소개

김유항·황진명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인 두 저자 김유항과 황진명은 평생의 학문적 동지이자 절친, 그리고 부부 과학도로서 과학 지식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책도 함께 집필하면서 과학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전쟁은 어떻게 과학을 이용했는가》, 《과학과 인문학의 탕고》, 《과학의 일곱 기둥》이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전쟁은 어떻게 과학을 이용했는가》 김유항·황진명 | 2021

《클래스가 남다른 과학고전》 조숙경 | 2023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 2018



자연과학

무질서와 질서 사이에서

조르조 파리시 지음 | 김현주 옮김
사이언스북스 | 2023

“지금껏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주지는 않는다. 결국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은 과업을 상상하거나 해결하려 직접 뛰어드는 것이 우리 일이 될 테니까.”(12쪽)

새들은 어떻게 소통하며 그 먼 거리를 이동할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자연현상의 법칙을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과학자의 에세이인 이 책에서 저자는 물리학도로 입문한 대학 시절, 본격적인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던 연구기관과 대학 재직 시절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특히 25세에 노벨물리학상을 아쉽게 놓치면서 깨달은 과학자로서의 고찰은 과학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자신이 연구했던 과학이론에 관해서도 찬찬히 설명해 준다. 상전이, 스핀유리 모형, 복제기법 등 다소 전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본문 곳곳에 옮긴이의 첨언이 붙어 있어 비교적 어려운 과학이론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한다. 책 후반부의 인명 정보와 용어 색인도 과학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과학을 실험실 밖 세상으로 가지고 오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이로움을 발견해 볼 수 있다. 📖

📖 저자 소개

조르조 파리시(Giorgio Parisi) 로마 사피엔차 대학교를 졸업한 후 프라스카티 국립연구소 연구원, 로마 토르 베르가타 대학교 이론 물리학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사피엔차 대학교에서 양자이론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복잡계의 물리적·수학적 원리를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볼츠만 메달, 막스 플랑크 메달, 노니노상, 울프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시간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학》 콜린 스튜어트 | 2023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미있는 물리》 미사와 신야 | 2023

《측정의 세계》 제임스 빈센트 | 2023



책을 가까이하며 사람에 대해 공부합니다 마술사 최현우

마술사에게 중요한 것은 테크닉일까, 퍼포먼스일까. 마술사 최현우는 “성실함”이라고 답했다. 마술에 처음 관심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그는 늘 책을 가까이하며 매일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오고 있다. 그 덕분에 최현우는 매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마술 공연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바람을 현실로 이루어주고 있다.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고 책을 좋아하는 남자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저는 1998년 SBS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이라는 TV 프로그램으로 데뷔했고요. 많은 분이 SBS <스타 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봐 주셨습니다. 프로 공연 마술사로 데뷔한 지 올해로 28년 차고요. 무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마술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마술을 시작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가 크셨어요. 마술을 하려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죠. 그때 저의 선생님이신 우리나라 제1호 프로 마술사 알렉산더 리(이응선) 선생님의 제자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밑에서는 한 4년 정도 마술을 했고, 본격적으로 제 마술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 뒤로 온 좋게도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마술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국 마술이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마술에 큰 도구가 등장하거나 화려한 안무가 필요했지만 최근 10~20대의 마술 화법은 다르거든요. 어떤 장치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이상 신기해하지 않아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마술을 하는 스트리트 매직이나 사람의 마음을 읽는 멘탈 매직을 많이 접한 세대가 그것을 마술이라고 정의 내리거든요. 그런 세대가 메인 관객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과도기 안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도구의 힘이나 화려함보다는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술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요즘 마술은 가족이 보는 콘텐츠라기보다 성인이 즐길 수 있는 ‘지적 유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에 맞게 타깃층을 겨냥한 마술을 설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공연 중 관객 참여형 마술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요즘 분들은 저의 파트너나 무대 스태프와 함께하는 마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무작위로 뽑힌 관객과 하는 마술을 훨씬 더 신기해하시죠. 그것을 진짜 마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AI(인공지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부터는 영상 분석도 가능해져서 마술 공연 링크를 넣으면 어떤 원리인지를 분석해 주거나 마술 기법 파는 곳을 알려주곤 하거든요. 이런 시대가 됐으니 마술이 ‘마법’이 되려면 어떠한 장치적인 것에서 벗어나 사람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신기함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뇌과학이나 심리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나요?

그렇죠. 그건 평생 해야 하는 공부예요. ‘마술은 성인이 즐길 수 있는 지적 유희’라는 생각도 사실은 뇌과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의 과학》(앤드류 뉴버그·마크 로버트 월드먼, 휴먼사이언스, 2012)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 인간이 진짜 산타클로스 혹은 마법이 있다고 믿는 나이가 일곱 살까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섯 살은 넘어야

신기함의 감정을 얼핏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국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마술을 보지만 그들이 느끼는 신기함은 성인과 달라요. 물리학의 법칙이나 추론 등을 통해 '이 물건이 여기 있어야 하는데 왜 없지?'라고 생각해야 신기하거든요. 인간을 놀라게 하는 가장 큰 전제는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은 선입견이나 믿음, 고정관념을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뇌과학이나 심리학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연구하기 위해 책도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제 공연 시나리오를 직접 쓰는데요. 시나리오에 관련된 책 법서를 정말 많이 사서 봤어요. 보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익히는 거죠. 또 무대디자인도 해야 하니까 무대디자인과 관련한 책도 사서 보고요. 연기도 해야 하니 관련된 책을 사고, 심리학이나 뇌과학 관련 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사서 봅니다. 그렇게 각 부분별로 책을 사서 그것들을 접목해 새로운 걸 만들어요. 저는 책을 도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책의 목차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빨리 읽은 다음에 그것들을 정보화하는 데 주력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책을 가깝게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테크닉적인 것들은, 손을 움직이는 연습이나 카드 마술 등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1~2시간은 매일 연습하는 것들을 하고, 새로운 마술을 연습하는 시간도 있죠. 거의 공무원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자기관리가 다음 단계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외모나 재능으로 잠깐 빛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오래 유지되는지 여부는 자기 관리에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결국 무대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마술은 기술적인 노련함과 생각을 모두 단련해야 하는 종합예술 같습니다.

마술은 과학, 예술, 철학,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면서 종합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책을 가까이할 수밖에 없는 것도 각 분야에 마술이 포진되어 있어서예요. 어쩔 수 없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의 삶이나 세계관을 탐구하려면 책을 계속 읽어야 하거든요. 마술 트릭을 밝힌 첫 번째 책을 과학자가 만들

었다는 사실도 흥미로운데요. 중세 시대 때 너무 많은 마술사가 마녀사냥을 통해 화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과학자가 마술의 원리를 밝힌 책이 저희 업계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러니 마술사는 역사가 오래된 직업인 거죠. 고대 신관의 예언이나 날씨를 점치던 천문학, 점성술 등이 모두 마술에서 기원해요. 과학적 사실들에 신빙성을 얻고자 했던 약간의 퍼포먼스가 마술이 된 것이죠.

마술에 필요한 책들은 대부분 구매해서 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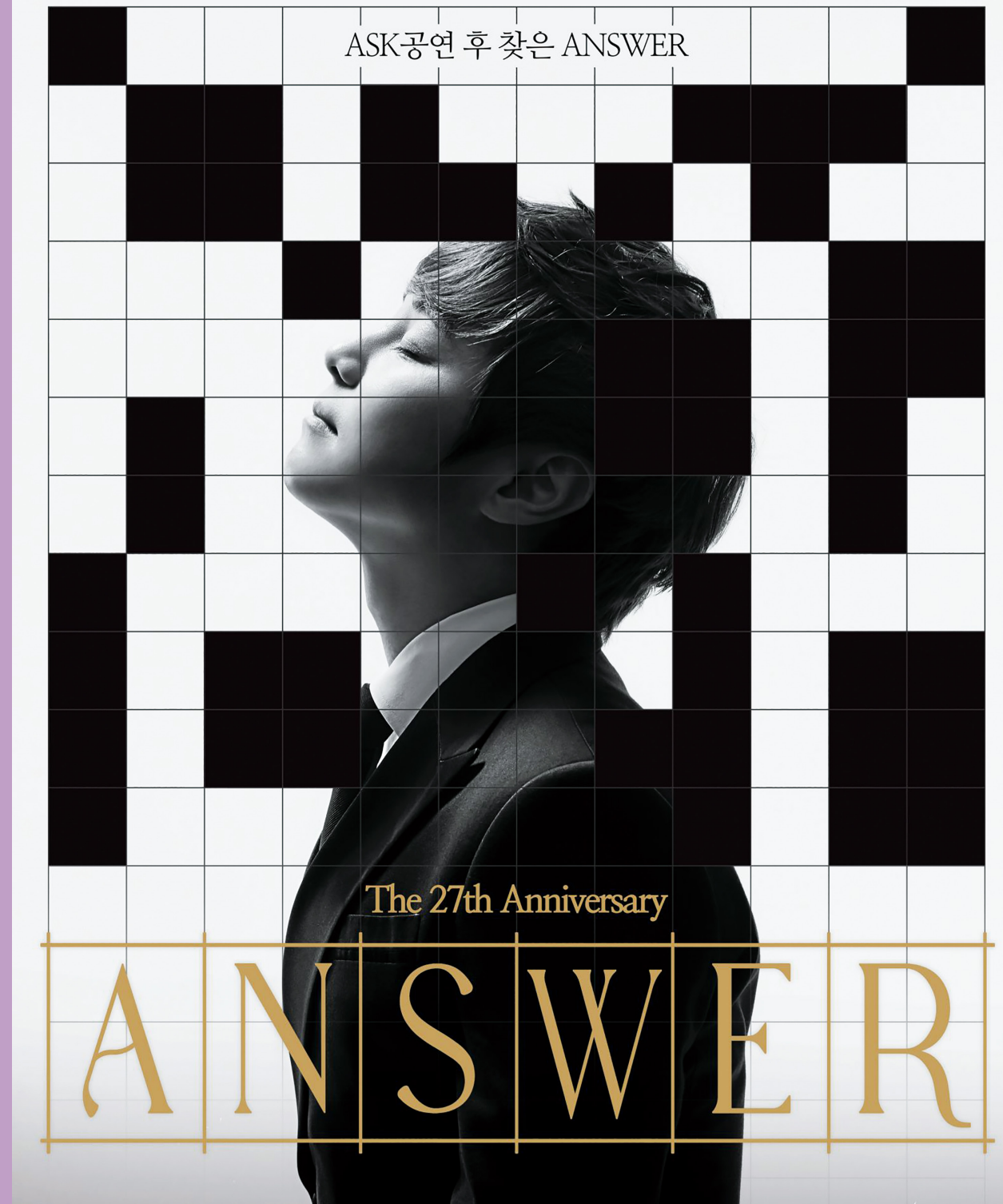
그렇죠. 많이 삽니다. 또 저는 생일이나 기념일이면 지인들에게 책 선물을 부탁해요. 다들 제가 나이가 있으니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홍삼을 정말 많이 보내거든요. 제발 나는 건강하니 홍삼은 그만 보내고(웃음) 책을 선물해 달라고 할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인터뷰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도서관에 가본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책을 저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책이 많은 이들에겐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현우 •

공연을 통해 테마가 있는 매직 콘서트를 선보이고 있다. SBS <스타킹>, MBC <세바퀴>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며, 대중들에게 새로운 마술의 세계를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제 내가 행복해지는 마술을 할 거야>,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니?> 등이 있다. 또한 2009년에 세계 마술 올림픽(FISM)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참가자 중 가장 독창적인 마술을 선보인 사람에게 주는 상인 오리지널리티상을 받았고, FISM 심사위원(2012)으로도 활동했다.



2024 최현우 Answer 공연 포스터 ©라운플레이

도구의 힘이나 화려함보다는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술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요즘 마술은 가족이 보는 콘텐츠라기보다 성인이 즐길 수 있는 '지적 유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에 맞게 타깃층을 겨냥한 마술을 설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술사 최현우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자신감을 되찾아드려요 ‘소금나루도서관’

미디어 창작 공간 ‘상상나루’를 조성하며 미디어 특화 서비스에 주력하는 소금나루도서관.

송지영 사서는 디지털 시대에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중장년 세대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비스 덕분일까. 도서관을 찾는 중장년 이용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취재 장성욱 사진 안호성



소금나루도서관의 종합자료실 모습

미디어 특화 서비스 도서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 자리한 소금나루도서관은 2021년 11월 코로나19 기간에 개관했다. 공공도서관 3년 차를 맞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되는 생활 속 지식문화 쉼터 역할을 위해 ‘새로움, 어울림, 즐거움’이라는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금나루도서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송문길 72(염리동)

전화번호 02-3153-1600



영상 제작 프로그램 실습 현장



팟캐스트 프로그램 실습 현장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도서관이 택한 전략은 ‘미디어 서비스’였고, 그 결과 ‘상상나루’가 탄생했다.

상상나루는 소금나루도서관의 미디어 창작 공간으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도서관 지하 1층에 조성됐다. 상상나루에는 주민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볼 수 있는 스튜디오 3실(1인실, 다인실, 크로마키)과 편집실 1실이 마련되어 있고 카메라, 조명, 마이크 등 약 50개의 영상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14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월 최대 4회, 1일 3시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 타 지역 주민들도 상상나루를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송지영 사서는 종합자료실과 상상나루 운영을 병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서관 이용자를 응대하는 시간이 많은 편이다. 평소에도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송지영 사서는 어느 날 50대 여성 이용자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이 질문은 ‘중장년 세대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 개발의 시발점이 되는 열쇠가 되었다.

“50대 여성 이용자께서 저에게 메타버스가 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일인데 질문하는 걸 많이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한 책을 추천해드리려고 책을 펼쳐봤더니, 제가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중장년층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중장년 세대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 개발

송지영 사서는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 증진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중장년층 지역 주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마포구 염리동에 거주하는 40~50대 중장년층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기에 이르렀다. 분석 결과, 중장년층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약 33.2%를 차지한다는 것과, 자녀 교육이나 회사 출퇴근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장년층은 기본적으로 조기 퇴직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 증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도서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어린이나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장년 세대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역량도 중요했지만 중장년층의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싶었어요.”

송지영 사서는 미디어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레퍼런스가 될 만한 다양한 미디어 센터를 찾아다니며 공부했고,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과정의 영상문화콘텐츠학과에 등록할 만큼 열정을 보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강사와 함께 커리큘럼을 짤 때는 참가자의 수준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중장년의 디지털 교육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2023년 한 해 동안 메타버스, 팟캐스트, 영상 제작, 챗GPT 등 다양한 테마의 ‘중장년 세대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다.



소금나루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수강생이 강사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소금나루도서관에 대한 송지영 사서의 열정은 남다르다. ‘중장년 세대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종합자료실 3층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만든 시(詩) 공간을 매번 직접 큐레이션한다. 휴관일에는 지역 중학생들을 초대해 북 큐레이션에 대해 안내하거나 독서 소품을 함께 만들기도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에 미디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직접 강사가 되어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멘티였던 분들이 멘토가 되는 거죠. 본인이 수강생으로서 직접 배워봤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령대도 비슷한 분들끼리 함께 수업을 만들어간다면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머릿속으로 구상을 마친 송지영 사서의 바람은 곧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❸

소금나루와 함께:) 공믹스맥스 영상제작!

공믹스맥스로
나만의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공믹스맥스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다양한 이펙트, 오버레이 효과 등을 할 수 있고
동영상 자르기, 영상 융합 풀이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신청대상 |
성인 대상 6명

| 운영기간 |
2024년 5월 14일 ~ 6월 18일 저녁 7시 ~ 9시
(매주 화요일 / 총 6회차) ★ 4. 23.(화) 오전 10시부터 접수!

| 신청방법 |
소금나루도서관 홈페이지에서
4/23(화) 오전 10시부터 신청가능
(문화행사마당 > 독서·문화 프로그램)

| 문 의 |
02-3153-1607
sjy2107@mapo.go.kr

★ 접수하러 바로가기 ★

소금나루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동영상 편집 교육 프로그램의 모집 포스터

수강생의 페이스메이커, 송지영 사서

‘중장년 세대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는 보통 4~6주 프로그램으로 기획, 소수 인원만 신청받고 난이도는 초·중급 수준에 맞춰 진행된다. 상상나루 공간의 수용력과 프로그램 실습 과정 특성상 개인의 디지털 역량에 따라 수업 진도의 편차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송지영 사서는 프로그램 운영 시, 진도가 늦거나 수업 내용을 어려워하는 중장년 참가자에게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강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다.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제가 항상 옆에서 대기하다가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드렸어요.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쭈뼛거리거나 자신의 모니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기려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수업 회차가 늘어날수록 자신감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도서관 덕분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었고, 편한 마음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어요.”

상상나루를 기반으로 진행된 다양한 미디어 프로그램들은 송지영 사서와 강사들의 세심한 노력 덕분에 참가자의 출석률과 수업 만족도 모두 90% 이상을 끌어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프로그램 성공에 힘입어 미디어 프로그램 후속 신청을 받았을 때는 신청 첫날부터 모집이 마감되고 신청 문의가 빗발치는 등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제17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소금나루도서관 내부 전경



‘중장년 세대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 담당 송지영 사서

“중장년 세대에 맞춰 서비스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들 세대가 자녀와 부모를 챙기느라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자신에게 온전히 쏟을 시간과 여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환경에 금세 익숙해지는 1020세대와 달리 도서관이 4050세대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기지 않는다면 결국 중장년 세대의 위기가 올 것만 같았어요. 중장년층 이용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지만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읽고, 도서관을 통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ROBARTS LIBRARY

ROBARTS LIBRARY

“만약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작 뉴턴이 남긴 말로, 자신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앞서 살았던 이들의 기록과 업적 덕분이라는 겸사이다. 기록에 대한 헌사와 기록하는 인간으로서의 긍지를 보여주기에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있을까 싶다. 기억의 한계와 제한된 수명을 가진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기록이다. 인류사는 기록이 남겨온 역사로, 역사를 바꾸는 기록 덕분에 위인을 거인으로 변모시킨다. 그중에서도 거대한 기록의 거인, 토론토대학교 도서관의 어깨 위에 올라보자.

글 김윤아(《서점 여행자의 노트》 저자) 사진 위키피디아

토론토대학교 도서관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과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 초판

©Shutterstock



토마스 피셔 희귀서 도서관 전경 ©Shutterstock

캐나다의 걸작이라 불리는 도서관

토론토대학교 도서관(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은¹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이어 북미 3대 도서관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한 캐나다 최대의 학술 도서관이다.² 1827년 영국 왕실의 허가를 받아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라는 교명으로 설립된 해, 도서관 건물을 개관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인트 조지(St. George)와 미시사가(Mississauga), 스카버러(Scarborough) 3개 대학 캠퍼스에 40여 개 건물로 자리 잡았다. 총 341개 언어로 된 1,200만 권의 장서³와 190만 권의 전자책, 200만 장에 이르는 고지도와 항공사진, 희귀본 및 예술품을 보유한 토론토대학교 도서관은 캐나다의 거대한 걸작이다.

각각 전문성을 가진 도서관의 집합체

최고의 연구 도서관으로 불리는 이곳은 300개 이상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폭넓은 연구와 학제 간 교류를 지원하며, 대학도서관이지만 일반인도 대부분의 건물에 출입이 가능해 풍부한 컬렉션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도서관은 한 개 건물이 웬만한 도서관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가장 유명한 존 P. 로바츠 연구도서

관(이하 로바츠 도서관)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문 도서관이다. 450만 권의 장서와 410만 권의 마이크로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14층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한다. 1,000석이 넘는 개인 학습 공간과 별도의 커뮤니티 시설은 로바츠 도서관 50주년을 기념해 졸업생인 모리스 부부와 1,000명이 넘는 기부자들에 의해 증축됐다. 토론토대학의 비공식 허브로 불리는 도서관을 향한 지지와 애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다.

토마스 피셔 희귀서 도서관은 매년 전 세계에서 1만 3,000명 이상의 학생과 학자, 일반인이 연구, 학습, 강의와 전시를 위해 방문하는 희귀 서적 전문 도서관이다. 셰익스피어를 포함한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 초판과 특별판, 역사적 의미가 깃든 원고를 소장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연구를 위한 모든 사람에게 자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¹ <https://www.vic.utoronto.ca/libraries>

² <https://exhibits.library.utoronto.ca/exhibits/show/utl125/introduction>

³ <https://exhibits.library.utoronto.ca/exhibits/show/utl125/collections>

토론토대학교 도서관은 건축, 천문학, 수학, 통계학, 중세 연구, 물리학 등 주제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함께 아우른다. 1828년 개관해 신학, 종교, 역사서를 20만 권 보유하고 있는 존 그레이엄 도서관, 세계 음악 연구와 악보, 예술가의 서신, 사진, 녹음 등의 파일을 다채롭게 보유한 낙소스 도서관도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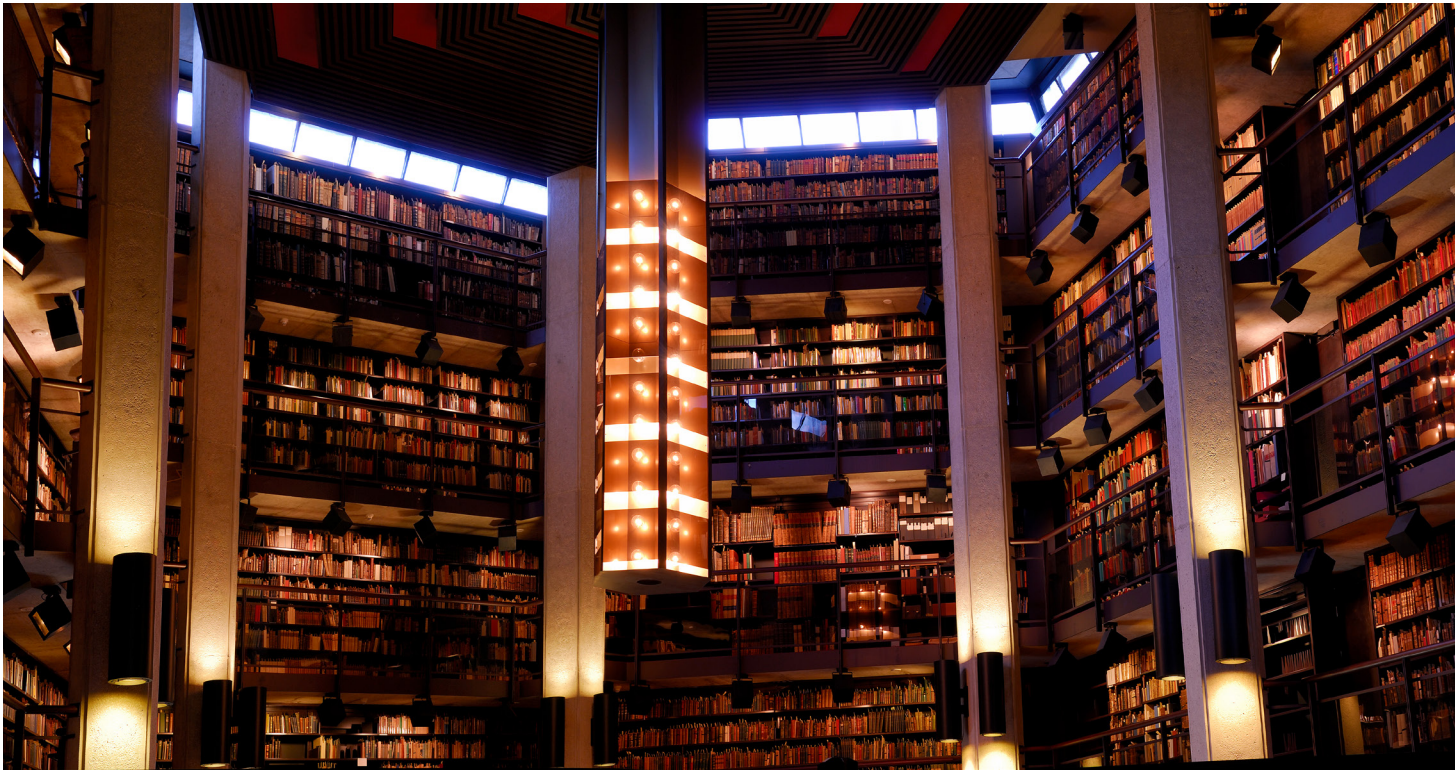
도서관을 통해 달성하는 연결성

도서관 건물은 도서관이 바라는 세상과도 같다. 도서관은 인종차별 반대 성명과 포용성, 다양성 및 형평성 선언문⁴을 통해 인종과 국적, 경제적 지위, 성적체성, 능력, 종교,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강조한다. 캠퍼스에서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 사이의 길이 되고 땅이 된다. 도서관 주변에는 도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식물이 심어진 정원이 있고, 각각의 건물은 지속 가능한 환경 디자인으로 지역 생태계에 기여한다. 도서관을 품은 자연과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연결성을 탐구하고 스스로의 영향력을 고찰하게 한다.

도서관은 인류의 시도와 모험, 성장의 여정을 기록한다. 4세기부터 중세 말까지 손글씨의 역사와 발전을 보여주는 라틴어와 그

리스어 작품집, 1789~1828년 멕시코 독립운동과 관련한 중요 연구 모음집,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1566), 그리고 생물학적 맥락에서 ‘세포’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로버트 후크의 《Micrographia》(1665)를 포함해 현대과학의 초석이 되는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이러한 보물을 관람이 아닌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타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고서의 보존을 위해 눈으로 보게만 하는 것과는 달리 가까이 만져볼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해 사서인 카터⁵는〈토론토대학교 신문〉에서 “우리는 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책을 사용하며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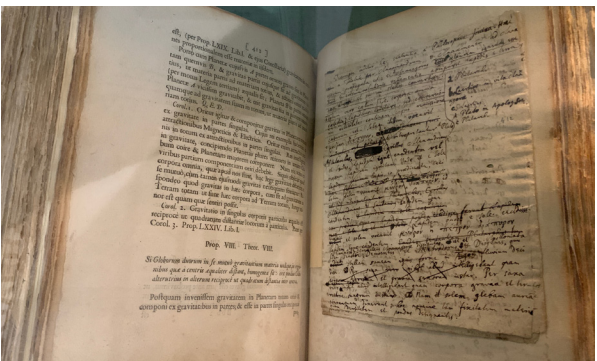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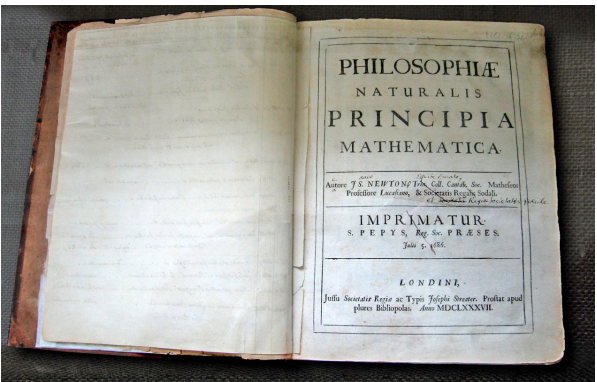
4 <https://onesearch.library.utoronto.ca/inclusion-diversity-and-equity-statement>
5 <https://thevarsity.ca/2018/10/21/unveiling-the-riches-of-the-thomas-fisher-rare-book-librarys-collection>



토론토대학교 도서관 내부 서고 ©Shutterstock

과학사의 한 획, 아이작 뉴턴의 책

도서관의 대표적인 보물은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1687) 초판이다. 원제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로 줄여서 프린키피아(Principia: ‘원리’라는 뜻의 라틴어)로 불리는 책은 뉴턴의 역작으로,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힌다. 중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학, 물리학, 천문학을 재편하고 역학과 중력, 속도의 개념을 정의하여 과학적 사고의 지평을 연 책. 자연현상을 수학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해 내며, 지구와 우주에 관한 새로운 설명서가 된 《프린키피아》. 도서관이 소장 중인 초판은 510쪽 분량의 가죽 제본으로,⁶ 1971년 한 서점에서 5,000달러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구해 온 책이다. 당시는 제본 장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뉴턴은 단순한 제본을 택해 실용성과 기능성을 높였다. 뉴턴의 초판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당시 《프린키피아》는 라틴어로 출판됐고, 저렴하지도 않았으며, 난도가 있었음에도 예상과 달리 적지 않은 이들에게 읽혔음을 밝혔다. 《프린키피아》 한국어판 출간 당시 한 물리학자의 추천사처럼 “인류 최고의 천재가 쓴 책을 소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법이다.



뉴턴의 주석이 달린 《프린키피아》 초판본 모습

토론토대학교 도서관은?

도서관명(영문)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운영시간	각 도서관은 건물별로 운영시간이 상이함
주소	University of Toronto Libraries,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ON M5S 1A5 Canada
홈페이지	onesearch.library.utoronto.ca
※ 로바츠 도서관, 거스타인 도서관, OISE 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에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하다.	

6 뉴턴의 《프린키피아》 초판은 2016년 뉴욕 경매시장에서 약 44억 원에 거래되었다.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experts-search-for-copies-of-rare-isaac-newton-book-three-available-in>
7 https://onesearch.library.utoronto.ca/sites/default/public/strategic_planning/strategic_plan_2020.2025_final.pdf

김윤아 • 《서점 여행자의 노트》 저자. 뉴욕, 런던, 파리, 리스본, 취리히 등에서 40여 곳의 서점을 탐방했고, 가장 인상적인 10여 곳에서의 기록을 책에 담았다. 다수의 매거진에 책과 여행을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했다. 종로의 미술관에서 ‘일상에서 영감찾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서관의 위기일까? 기회일까?

생성형 AI의 등장은 정보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생성형 AI가 도입된 이후에는 원하는 정보만 요약해서 얻을 수 있게 됐다. 도서관계에서도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더 이상 독서를 하지 않아도 책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원하는 정보를 도서관의 구독 자원 대신 생성형 AI로 편리하게 얻을 수 있어 도서관이, 사서가 사라질 수 있다고도 한다. 반면 새로운 기술인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개설하고, 독서 프로그램에 생성형 AI를 연계하여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곳도 있다. 생성형 AI 시대,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글 이지옥(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팀 사서) 사진 각 도서관



생성형 AI와 정보 활용 교육

생성형 AI의 가장 큰 특징은 원하는 정보만 요약하여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생성형 AI 과의존에 따른 문해력 저하 및 학습 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사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생성형 AI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도서관의 정보 활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그 예로 중앙대학교 도서관에서는 'AI 챗봇 활용과 연구윤리: ChatGPT를 중심으로'라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생성형 AI에 대한 올바른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과제 및 논문 작성 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소개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 윤리,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의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ChatGPT 프롬프트 경진대회를 시행하고, 다양한 생성형 AI 특강을 개설하여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고 있다.

서울 신림고등학교 도서관에서는 2023학년도에 ChatGPT를 활용한 도서관 협력 수업을 진행했다. 화학과의 도서관 협력 수업 시 ChatGPT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프롬프트 질문을 통해 토론 주제 선정, ChatGPT를 통해 얻은 정보의 검증 및 정확한 참고정보원 안내, 출처 표기 안내 등을 지도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올바르게 접근하고, 점검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정보 활용 능력이란 자신의 정보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원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생성형 AI 활용 시 어떤 키워드로 질문을 할 것인지, 제공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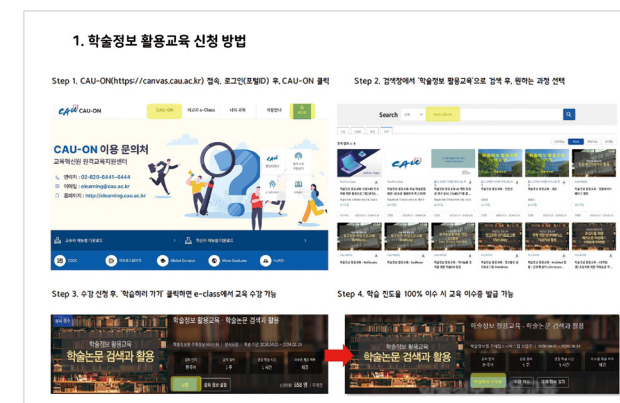
정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력도 정보 활용 능력에 해당한다. 이때 도서관 구독 자원을 이용한 검증과 평가, 올바른 출처 표기 교육을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생성형 AI를 연계한 정보 활용 교육은 도서관의 핵심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AI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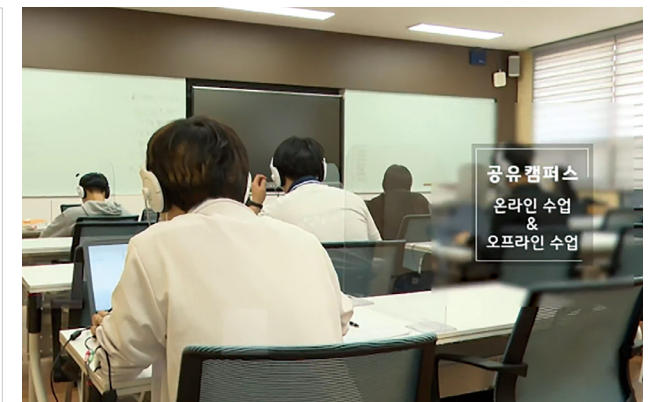
생성형 AI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는 것뿐 아니라 기존 문서 요약, 글쓰기,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창작 영역까지 확장되어 범위를 넓히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생성형 AI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친숙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동화책 만들기 강좌를 운영 중이다. AI를 활용해 동화의 줄거리를 생성하고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AI) 동화책 작가 탄생'이다. 아이들이 창의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로 AI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글쓰기와 그림에 활용하고자 했으며, 추후 음악, 영상까지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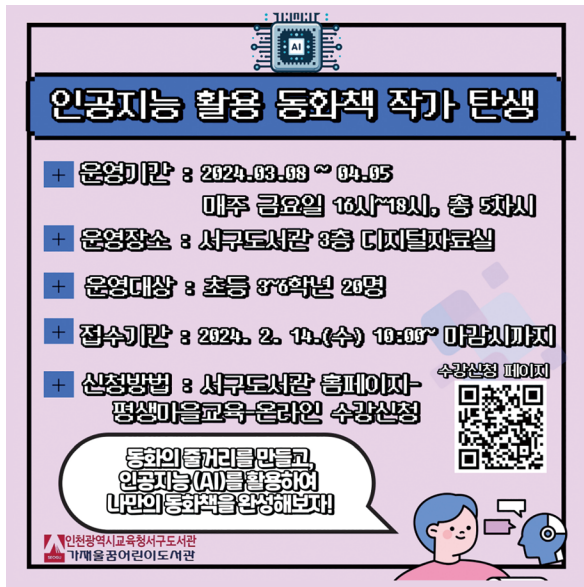
인천서구구립도서관인 석남도서관은 'ChatGPT와 독서 토론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사서의 주도하에 ChatGPT가 패널이 되어 참가자들의 의견에 답변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토론 도서를 읽은 후, 주제에 대해 사서와 참가자들 간의 토론, ChatGPT를 활용한 토론, ChatGPT의 답변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습득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중앙대학교 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학술정보 활용 교육 안내 내용
(출처: 중앙대학교 도서관)



온오프라인 수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신림고등학교
(출처: 신림고등학교 도서관)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화책 만들기 교육을 실시한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ChatGPT와 독서 토론 모임을 진행한 석남도서관
(출처: 석남도서관)

융합형 독서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의 잠재력은 커지고 있다.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원하는 이미지, 영상 제작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생성형 AI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융합형 독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성형 AI가 불러온 도서관의 미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혁신이 이뤄졌으며 도서관, 사서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도서관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시됐다. 도서관계에서는 다양한 직무교육 및 특강을 개최해 AI 시대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24 사서 교육 훈련'의 일환으로 'AI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술 관련 미래역량 교육'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AI·데이터 기술의 도서관 적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전문 사서' 양성 교육 또한 신규로 기획하여 운영 중이다.

제3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24~2028)에서도 전문교육을 통해 디지털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전문 사서 양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생성형 AI 활용 관련 직무교육을 통해 도서관 인력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생성형 AI 시대,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사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도서관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❷

이지옥 •

현재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팀 사서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대학신문〉을 비롯해 다수의 매체에서 도서관에 대한 칼럼을 연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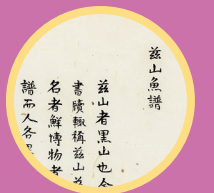
34 문헌의 가치
《자산어보(玆山魚譜)》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

38 문학상 읽기
무에서 무로, 그것이 살아가는 과정이다
온 포세 〈아침 그리고 저녁〉

42 나를 바꾸는 독서
팀 마샬, 《지리의 힘》
이토록 전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46 숫자로 보는 테마 랭킹
화목한 가정을 위해 어떤 책을 읽을까?
'최근 3년간 가정과 관련한 인기 도서 분석'

48 똑똑한 독서 생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의 보고(寶庫), '사회과학(300)'



서재를 견다

《자산어보(茲山魚譜)》탄생에 기여한 사람들



《자산어보》표지

2021년 3월에 영화 〈자산어보〉가 개봉되었다. 이준익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배우 설경구(정약전 역)와 변요한(장창대 역) 등이 참여하였다. 영화는 큰 관심을 받았고, 덩달아 영화의 바탕이 된 《자산어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국립중앙도서관본 《자산어보》는 원래 표지가 없고, 1940년대에 판매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¹ 앞뒤 표지가 있으며, 124면에 약 2만 3,186자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茲山魚譜 丁銓 著 全’이라고 되어 있다. 권말에 필사기가 있는데, “원본 소장자는 경성(京城) 김태준(金台俊), 필사자는 경성 정계섭(鄭啓燮), 교정자는 경성 홍재하(洪在夏)다. 병술년(1946) 9월 10일에 필사를 완료하였다.”라는 문장이 있다. 현재 김태준이 소장하였던 원본은 발견되지 않고, 필사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규장각본 2종이 있다.

글 이미란(학예연구사)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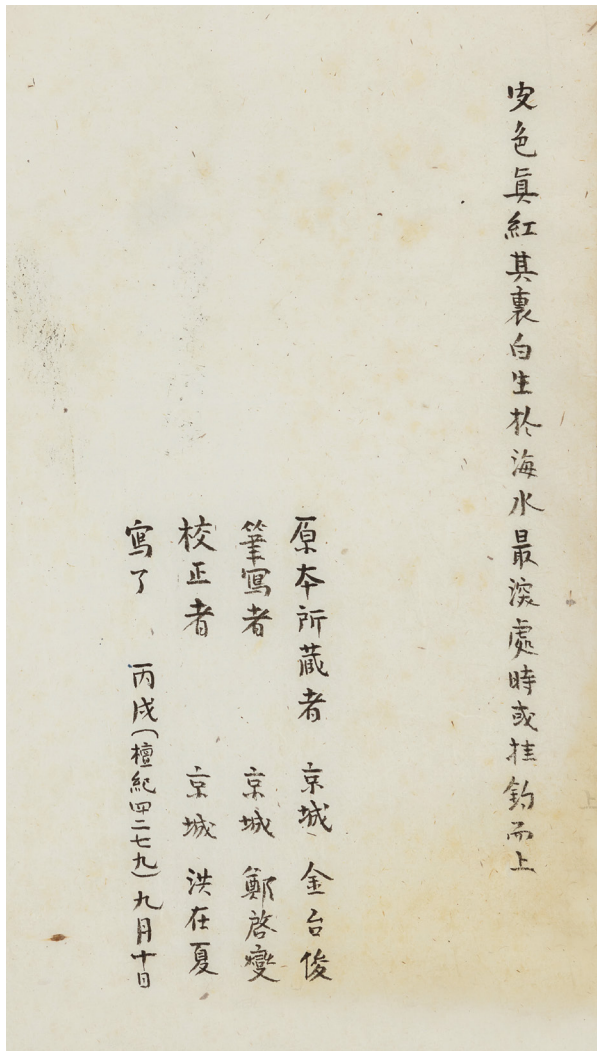
본 지면에서는 손암(巽菴) 정약전(丁若銓) 외에 《자산어보(茲山魚譜)》 저술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덕순(德順) 장창대(張昌大), 학래(鶴來) 이청(李晴) 등을 정약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정약용과 정약전

정약용의 동복 3형제² 중 첫째는 정약전, 둘째는 정약중(丁若鍾), 셋째는 정약용이다. 이들 3형제는 1801년(순조 1) 신유박해(辛酉迫害)에 연루되어 둘째는 참수되었고, 정약전은 신지도(薪智島)로, 정약용은 장기(長鬐)로 유배되었다가 얼마 후 정약전은 흑산도(黑山島)로, 정약용은 강진현(康津縣)으로 이배(移配)되었다. 형제는 함께 귀양길을 떠나 전라남도 나주(羅州) 율정점(栗亭店)에서 헤어져 각기 배소(配所)로 갔고, 헤어진 뒤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16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 기간에 서로 수많은 편지로³ 안부와 함께 학문에 대해 토론하였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형에 대해 말하면서, “외로운 천지 사이에 우리 손암 선생만이 나의 지기(知己)였는데 이제 잃어버렸으니, 앞으로는 비록 터득하는 바가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입을 열어 함께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차라리 진작에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⁴

《자산어보》 저술과 관련해 ‘자산(茲山)’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정약용이었다. 이 점은 정약전이 직접 지은 이 책 서문의 ‘가인(家人)’이라는 말과 정약용의 시⁵ 〈구일에 보은산 정상에 올라 우이도를 바라보며〉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책에 그림을 삽입하지 않은 것은 정약용의 영향으로 보인다. 정약용이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⁶, “《해족도설(海族圖說)》은 (종략) 도형(圖形)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글로 쓰는 것이 그림을 그려 색칠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학문의 종지(宗旨)에 대해 먼저 그 대강(大綱)을 정한 뒤 책을 저술하여야 유용(有用)하게 될 것입니다.”⁷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약용은 제자 이청(李晴)을 통해 정약전이 《자산어보》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1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산어보》를 구매할 때 동일한 판매자에게서 다른 책들도 구매했는데, 그중 여러 책의 표지가 같았다.
- 2 아버지 정재원(丁載遠)은 첫째 부인 의령 남씨(宜寧南氏)와의 사이에 정약현(丁若鉉)을 두었고, 둘째 부인 해남 윤씨(海南尹氏)와의 사이에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과 이승훈(李承薰)의 아내가 된 1녀를 두었으며, 측실(側室) 김씨(金氏)에게서 정약형(丁若鏗)과 2녀를 두었다.
- 3 《다산 시문집》 제20권에 실린 편지만 17편이 넘는다. 이 외에 《다산 시문집》 제15권 〈선중씨(先仲氏)의 묘지명〉을 보면, 편지를 통해 안부 외에도 《역전(易傳)》, 《예전(禮箋)》, 《악서(樂書)》 등에 대한 학술적 의견 교환도 나누었다.
- 4 《다산 시문집》 제21권 〈두 아들에게 부침〉 참조.
- 5 《다산 시문집》 제4권 〈구일에 보은산 정상에 올라 우이도를 바라보며[九日登寶恩山絕頂望牛耳島]〉에서 다산은, “흑산(黑山)이라는 이름은 음침하고 두려워할 만하여 내 차마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서신을 쓸 때마다 자산(茲山)으로 고쳐 썼는데 자(茲)란 검다는 뜻이다[黑山之名 幽黑可怖 余不忍呼之 每書札改之爲茲山 茲者黑也]”라고 하였다.
- 6 《다산 시문집》 제20권 〈중씨께 올림〉 참조.
- 7 2016년 김문기 부경대학교 교수가 쓴 《〈茲山魚譜〉와 《海族圖說》: 근세 동아시아 어류박물학의 갈림길》이라는 논문에 “《자산어보》와 《해족도설》은 둘 다 손암이 지은 같은 책이다. 다산은 손암에게 생물학적 접근보다 윤리적인 유용한 저술을 하도록 권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1

1 자산어보 필사기

2 자산어보 서문

장창대와 정약전

영화 <자산어보>에서 장창대는 학문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배우지 못한 청년으로 나온다. 하지만 <자산어보>에서는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이 책 서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섬에 덕순 장창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문사객(杜門謝客) 하면서 고서를 독실하게 좋아하였다. 다만 집이 가난하여 책이 적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나 보는 것이 넓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고요하고 정밀하여 이목으로 접한 모든 초목, 새, 어류들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리(性理)를 터득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믿을 수가 있었다. 내가 마침내 요이관지(邀而館之) 하여 함께 강구하고 차례를 매겨 책을 이루어 <자산어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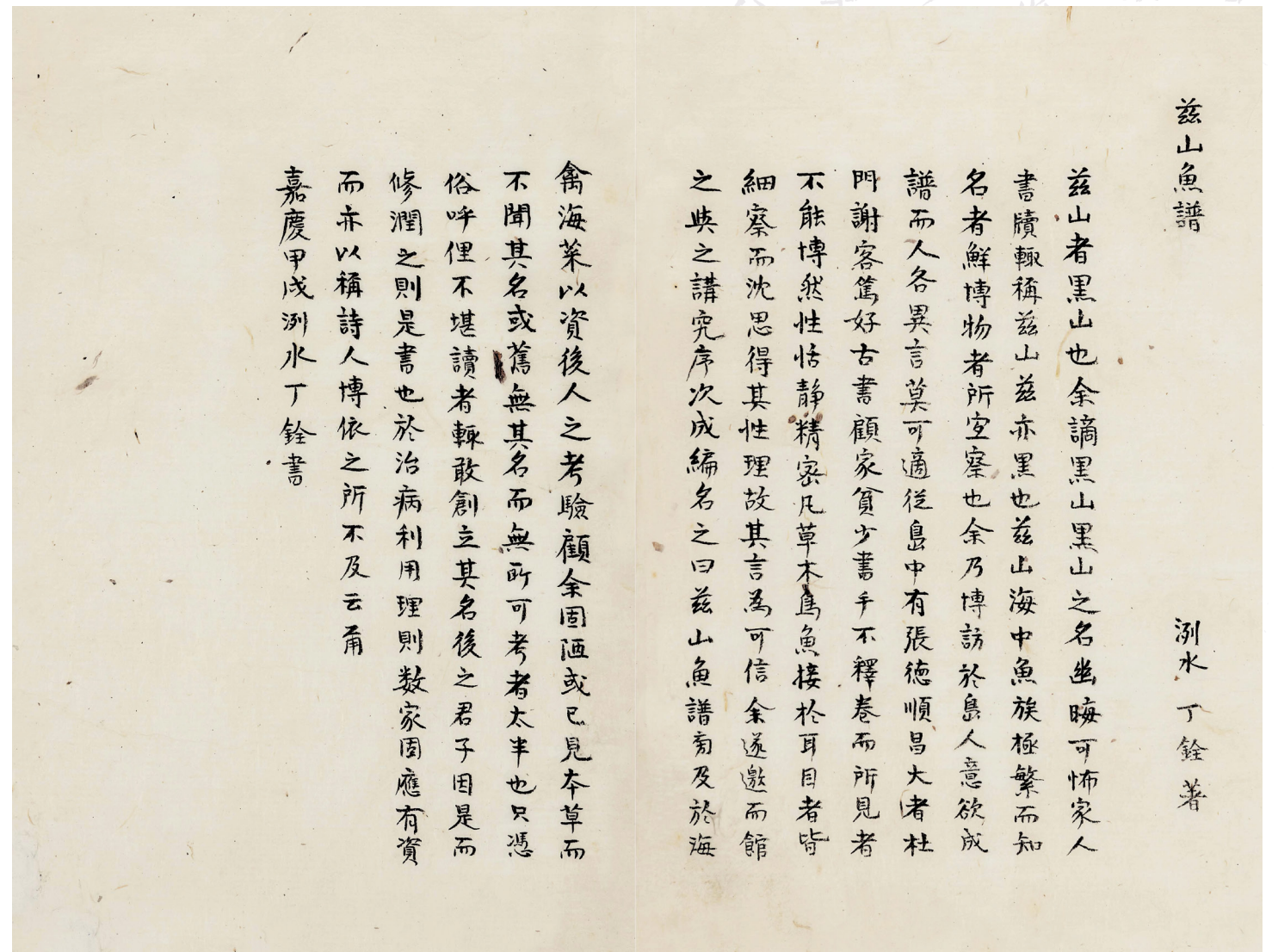
‘두문사객(杜門謝客)’은 학식과 덕망이 있어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방문할 때 문을 닫고 사양하며 은둔한다는 말이다. ‘요이관지(邀而館之)’는 서로 마음이 맞아 정중하게 자신의 집으로 모셔 머물게 한다는 말이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장창대는 정약전이 인정할 정도로 덕망과 학식이 상당히 높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된 학자로 보인다.

이청과 정약전

<자산어보>에는 “청이 상고하건대[疇案]”라는 말이 65회쯤 나온다. 청(疇)의 성은 이(李), 자는 학래(鶴來)다. 정약전이 이 책을 지을 때, 이청은 <정자통(正字通)>, <설문(說文)>, <본초강목(本草綱目)> 등의 서적들을 상고하여, 의심나는 내용을 보강하고 문헌적 전거 등을 제공하였다. 이청은 정약용의 제자록(弟子錄)인 <다신계안(茶信契案)>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며, <사대고례(事大考例)> 편찬을 주관하고, <상서고훈(尙書古訓)>을 편집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다음의 편지에 따르면, 이청은 아전 집안 출신이었으나 강진에서 정약용을 스승으로 모시고 생활하면서 다산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산 시문집> 제20권 <중씨께 올림>에, “읍내(邑內)에 있을 때 아전 집안 아이들로서 배우러 왔던 사람이 4, 5명 되었는데 거의 모두가 몇 년 만에 폐하고 말았습니다. (중략) 만약 머리를 굽히고 힘써 배울 수만 있었다면 이청과 더불어 서로 짝이 맞을 것 같았는데 (중략) 이 때문에 저를 따라 다산(茶山,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에 있던 초당)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맺음말

정약용은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 <자산어보> 저술에 관여하였고, 자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림을 삽입하지 말고 윤리학적 관점에서 저술할 것을 주장하였다. 장창대는 정약전이 자서에서, “함께 연구하고 목차를 정하고 편집하였다.”라고 하여, 사실상 그를 공동 저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청은 본문에서 “청이 상고하건대[疇案]”라고 하여 65회 정도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고 내용을 보강해 주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자산어보>는 정약전과 함께 정약용과 장창대, 이청 등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



2

무에서 무로, 그것이 살아가는 과정이다 - 윤 포세 《아침 그리고 저녁》

이 소설은 탄생이라는 인간의 시작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끝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불안과 고민, 걱정과 기쁨 등을 예리하게 포착해 표현함으로써 휴머니즘을 불러일으킨다.

글 황정산(시인·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넘나드는 윤 포세의 글쓰기

윤 포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희곡을 쓴 작가로 '재림 입센', '21세기 사무엘 베케트'로 불리는 노르웨이의 극작가 겸 소설가이다. 그는 현재도 희곡과 소설 외에 시, 그림책,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를 종횡하며 글쓰기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 독자들과 온라인으로 독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윤 포세는 1959년 노르웨이 헤우게순에서 태어났다. 1983년 장편소설 《레드, 블랙(Raudt, svart)》으로 데뷔했다. 1994년 〈그리고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으리〉라는 첫 희곡을 쓴 이후 〈이름〉, 〈누군가 올 거야〉, 〈밤은 노래한다〉, 〈가을날의 꿈〉 등의 희곡을 써 국제적인 명성의 극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1992년, 2003년, 2019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노르웨이어로 쓰인 최고의 작품에 주어지는 뉘노르스크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웨덴 북유럽문학상 등 전 세계에서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몇 년간 노벨문학상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다 드디어 작년인 202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여기에서 다룬 《아침 그리고 저녁(Morgon og kveld)》은 2000년에 발표한 그의 대표 소설 작품으로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선정한 '살아 있는 100인의 천재'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Jon Fosse



인생의 아침과 저녁

이 소설은 평범한 한 어부의 탄생과 죽음을 각각 1부와 2부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1부는 주인공 요한네스가 태어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어부 올라이의 아내 마르타는 둘째 요한네스를 출산한다. 출산은 늙은 산파 안나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데 남자가 출산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금기시되었기에 올라이는 밖에서 지켜보며 마음을 졸인다. 다행히 요한네스는 무사히 태어났고, 큰 딸 마그다와 4인 가족을 구성하게 되며 올라이는 기뻐한다.

2부는 요한네스의 죽음을 다룬다. 늙은 요한네스는 아내 예르나와 사별하고 홀로 남았지만 다행히 7명의 자식이 있고 손자와 손녀들은 건강하다. 또한 막내딸은 그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늙은 그를 잘 돌봐준다.

어느 날 요한네스는 평소와는 달리 가벼운 느낌의 하루를 맞이하고 산책 도중 해안에서 이미 죽은 친구 페테르와 만난다. 페테르와 동행하며 대화하지만 요한네스는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루가 지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향하는 요한네스는 자기 집에 온 막내딸과 만나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아버지가 걱정되어 요한네스를 찾아간 그녀는 요한네스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요한네스에게 다가온 페테르는 요한네스를 데리러 왔다고 말하며 사후세계로 떠나자 말한다. 요한네스는 슬퍼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따라간다.

개성적인 문장과 서술 방식으로 인생을 표현하다

이 소설은 특별하거나 극적인 사건 전개도 긴박한 서사구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알 수 없는 매력으로 소설 속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그것은 주로 이 작품이 보여주는 문체의 힘 때문이다. 이 작품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노르웨이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다. 그 안에서 펼쳐지는 작중 인물의 사색과 감성이 우리에게 삶에 대한 성찰로 이끌어준다. 이 소설의 옮긴이에 따르면, 특히 이 작품은 노르웨이어의 음악적인 리듬을 잘 살려 썼다고 한다. 이런 실험적인 문학적 시도를 통해 삶의 시간과 그 시간의 리듬이 생동감 있게 표현된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번역문으로 읽어야 하는 우리는 아쉽게도 그런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독특한 산문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 마침표가 없는 줄글의 서술 방식, 단락 구분이 안 된 서술의 연쇄, 그리고 가끔 등장하는 간단한 대화와 침묵의 여백은 온 포세만의 독특한 산문적 리듬을 형성한다. 이런 리듬의 완급 조절을 통해 한 인물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그것의 배경이 되는 자연을 잔잔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문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한 인물의 삶의 긴 하루가 우리에게 사색의 시간과 삶에 대한 지혜를 선물한다.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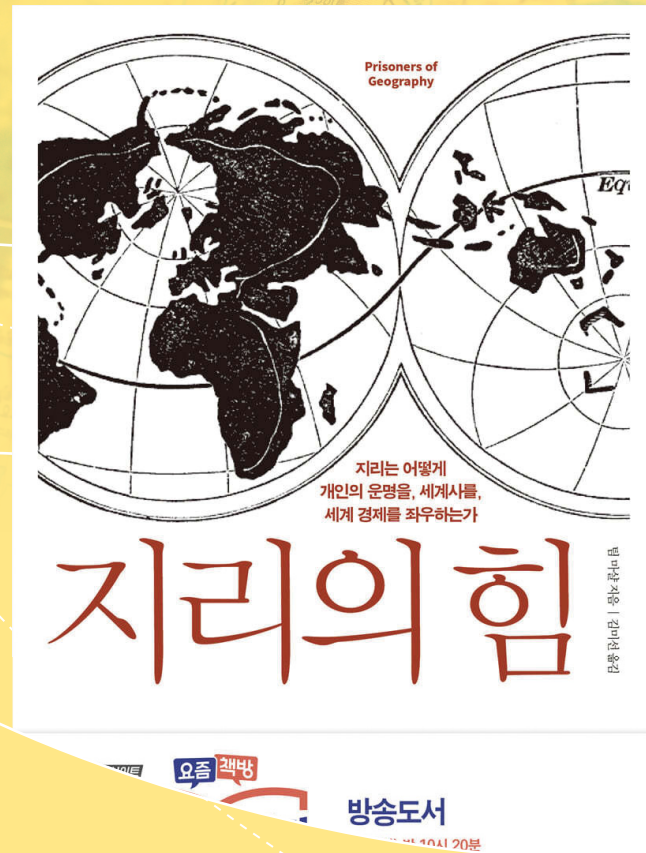


1

황정산 • 1993년 《창작과비평》에서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정신과표현》에 시를 발표했고, 저서로는 《주변에서 글쓰기》, 《쉽게 쓴 문학의 이해》, 《소수자의 시 읽기》 등이 있다. 현재 계간 《상상인》 주간으로 활동 중이다.

1 은 포세 《아침 그리고 저녁》

팀 마샬, 《지리의 힘》 이토록 전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벌써 수년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마저 일어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증폭하고 있다. 좀 더 가까이에서는 중국이 바다 한복판에 일방적으로 ‘구단선(중국 영토임을 표시하는 선)’을 선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적 충돌을 빚고 있다. 한반도 역시 언젠가 다시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긴장 상태임은 이제 익숙하기까지 하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의 어딘가에서는 늘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글 김건형(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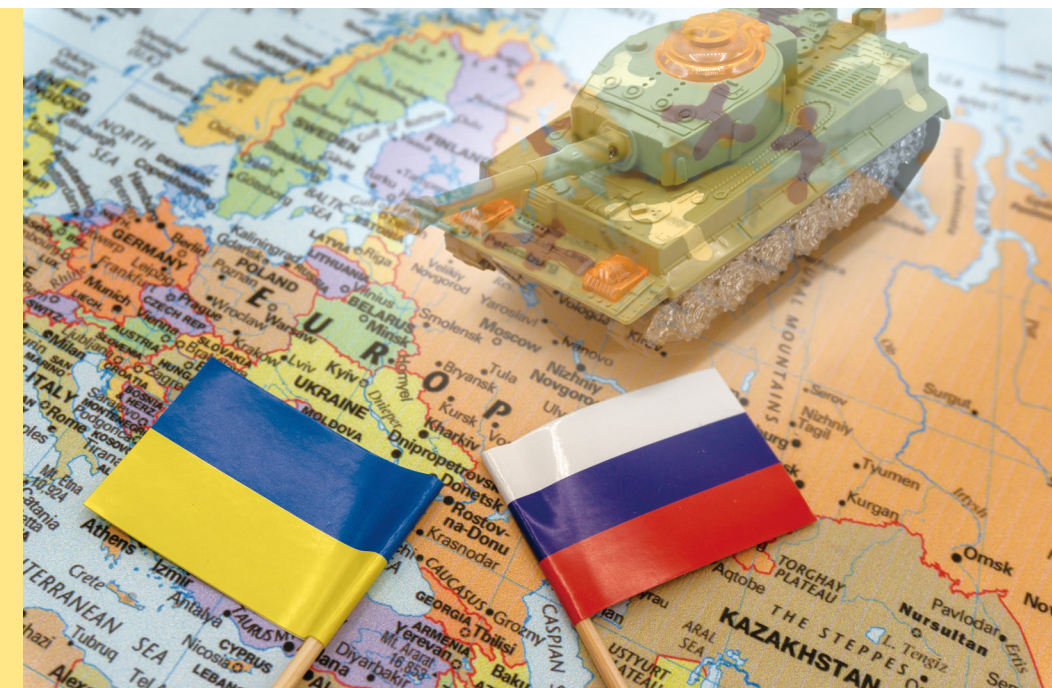
이해할 수 없는 분쟁을 이해하는 열쇠, 지정학

전쟁 혹은 분쟁은 흔히 민족끼리의 갈등의 역사나 권위주의 국가의 일인 독재 체제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곤 한다. 물론 타당한 분석이다. 하지만 그런 개별적 사안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그 갈등과 독재가 세계사에서 자주 반복되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지리의 힘》 저자 팀 마샬은 세계 분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로 지정학(Geopolitics)을 제안한다. 지정학은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지리-정치학이다. (산맥과 바다의 분포 같은 자연지리뿐 아니라 자원과 인구 분포의 관계 같은 인문지리까지를 포괄하는) 지리가 국가·민족 단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것이 곧 정치적 경향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가령 지금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장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의 느닷없는 변덕이나 일방적인 고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뿐)만은 아니다. 팀 마샬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의 지리에 따른 역사적 경향성이 다시 한번 돌출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도를 보면 서유럽에서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에 이르기까지, 산맥 같은 지리적 방어선이 없는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유럽에 강대국이 등장하면 모스크바까지 침공을 받아온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국가적 목표는 부동항(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을 차지하는 것과 더불어 서부에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현대의 러시아도 중부·동부 유럽으로 미국과 EU가 진출하는 현황을 마주하자 역사적 공포를 기억해 냈다. 그 집단 기억이 작동한 결과 우크라이나에 완충지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가 생겨난 셈이다. 다시 말해 유럽 대륙의 지형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의 지리에 따른
역사적 경향성이 다시 한번 돌출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역사의 법칙, 지리학

사실 《지리의 힘》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기도 한참 전에 발표됐지만, 팀 마샬은 이미 유럽 대륙의 지리 때문에 생겨난 역사적 패턴을 분석해 두었다. 덕분에 이 분석을 현대의 사건에 대입해 보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는 지리가 엄연한 물리적 현실로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 반복한다는 역사의 법칙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분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토를 한참 떠나 머나먼 남중국해까지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구단선 선포도 억지스럽고 무리한 자국 중심주의이기에 이해 불가능하고 돌발적인 일탈적 행위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런데 팀 마샬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서유럽 열강들 역시 똑같이 자신의 영토와 무관한 카리브해와 파나마운하, 홍해와 수에즈운하를 장악하려고 무력시위와 군사 충돌을 감행했던 역사를 비교 사례로 제시한다. 미국이 본토 방위와 운송로 확보를 위해 카리브해를 자신의 영해처럼 장악하고 파나마를 침공하기도 했던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내적 원인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유사한 행보는 근현대 국가경제의 근간에 해상 운송로, 특히 석유 수입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육지의 자원 그 자체뿐 아니라, 바다의 운송로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법칙과 그 사례를 이해하고 있을 때, 패권국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중국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남중국해는 중동 지역에서 중국에 이르는 석유 운송로와 본토를 방어하는 선제 기지의 기능을 하기에 놓칠 수 없는 지역이다.

이처럼 지리는 인간 집단의 행동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여전히 현대 국가의 움직임을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역사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반복되는 역사의 법칙 속에서 지리의 역할을 파악한다면, 그다음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다. 역사에서 지리가 미친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면, 앞으로의 사례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해지는 것이다.

움직임의 지리-정치

이러한 팀 마샬의 서술에서는 국제적 분쟁이나 국가의 움직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러한 움직임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냉정한 현실주의적 태도가 녹아 있다. 미국 제일주의의 그림자가 깔려 있고 (미국의 잠재적 적이라는 대중적 통념에 충실하게) 중국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암묵적인 경계심이 저변에 깔려 있는 등 다소 우경화된 서구 중심주의가 감돈다는 점을 감안하며 읽을 필요는 있다. 한반도의 분단을 지정학적으로 설명하는 대목도 있어 우선 눈길을 사로잡지만, 미중 대립의 산물이라는 식의 다소 상식적이고 익숙한 분석이라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아쉽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마샬은 지리학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 그저 지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결과론이 아니라, 지리를 통해 인간 사회가 움직이는 역동성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책은 지리가 단순히 주어진 배경이나 수동적인 무대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요소임을 현대사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이 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특정한 장소나 고정된 위치보다는 ‘움직임’에 대한 발견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석탄 같은 천연자원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풍요로운 농경지와 하천이 고대 4대 문명의 출발이었다는 방식으로 고정된 장소의 독특성으로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 ‘장소의 지리학’은

《지리의 힘》은
한 장소의 독특성보다는
항해가 가능한 강과 해양 운송로,
사막과 산맥 등
외적을 막는 방어물 등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일정한 규칙에 더 주목한다.



사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편이다. 하지만 《지리의 힘》은 한 장소의 독특성보다는 항해가 가능한 강과 해양 운송로, 사막과 산맥 등 외적을 막는 방어물 등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일정한 규칙에 더 주목한다. 다시 말해 (지리에 의한) 인간의 움직임을 통해 인간 사회를 설명하려는 시선이다. 이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단순한 반영을 넘어서, 인간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응용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움직임의 지리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으로서의 지리라는 저자의 가치관에서부터 출발한다. 아카데미의 지리학자가 아니라 분쟁지역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동시대의 삶에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리학의 힘을 체감했다는 자기소개에 걸맞게 팀 마샬의 시선은 현재를 향한다.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기보다는 현실의 분쟁과 그 지리학적 기원을 설명하는 데 더 민감한 시선이 가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의 중요한 장점이다. 동시대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 《지리의 힘》은 유용한 입구가 될 것이다. ❶

김건형 • —————
198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 문학동네신인상을 수상하며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현재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 어떤 책을 읽을까? ‘최근 3년간 가정과 관련한 인기 도서 분석’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학·가정생활 분야의 인기 도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육아 관련 도서들이 순위에 올랐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아마도 육아이기 때문이 아닐까. 아이에게 말하는 화법부터 육아의 본질 탐색에 이르기까지, 부모들은 화목한 가정을 위해 육아 ‘기술’서를 섭렵하고 있었다.

정리 이혜민 자료제공 각 출판사 데이터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분석 기간 2021.5.1~2021.5.31. / 2022.5.1~2022.5.31. / 2023.5.1~2023.5.31.(검색 조건: 아동 도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2021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오은영의 현실밀착 육아회화》

오은영 지음 | 김영사 | 2020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부모의 말’을 친절하게 소개하는 육아서이다. 육아 현실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현실 밀착형 말 130가지를 담고 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상황마다 교육할 수 있는 말을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가 제시한다.

1

1,868회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오은영의 현실밀착 육아회화》

오은영 지음 | 김영사 | 2020

854회

《못 참는 아이 육하는 부모》

오은영 지음 | 코리아닷컴(Korea.com) | 2016

709회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 삶이 바뀌는 신박한 정리》

이지영 지음 | 쌤앤파커스 | 2020

0 500 1,000 1,500 2,000

2022



《서울대 삼 형제의 스노볼 공부법》

윤인숙 지음 | 심야책방 | 2022

세 아들을 모두 서울대학교에 보낸 저자가 ‘서울대 삼 형제의 첫 공부 습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세 아들을 키우면서 반드시 지켜려고 노력했던 교육 원칙과 10년 넘게 학원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길어올린 노하우가 담겨 있다.

1

1,687회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오은영의 현실밀착 육아회화》

오은영 지음 | 김영사 | 2020

993회

《서울대 삼 형제의 스노볼 공부법》

윤인숙 지음 | 심야책방 | 2022

870회

《4~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아이의 정서와 인지 발달을

키우는 결정적 시기》

이임숙 지음 | 카시오페아 | 2021

0 500 1,000 1,500 2,000

육아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육아법, 교육법 등 책의 주제가 온통 육아에 필요한 기술의 연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학·가정생활이라는 분야 자체가 십진분류표 중 기술과학 분야에 속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결국 가정생활이란 기술자가 한 분야의 달인이 되듯 노하우를 터득해 노련해지는 과정이 아닐까. 어렵게 느껴지는 가정생활이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는 분야임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 말이다. 6

2023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육아: 삶의 근본을 보여주는 부모,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아이》

지나영 지음 | 21세기북스 | 2022

한국인 최초 존스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이자 의사인 저자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키우는 ‘본질육아법’을 소개한 책이다. 한 인간으로서 부모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고, 육아의 본질로 돌아가라며 자율성과 자립심을 키우는 방법을 정리했다.

1

1,380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육아: 삶의 근본을 보여주는 부모,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아이》

지나영 지음 | 21세기북스 | 2022

984회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오은영의 현실밀착 육아회화》

오은영 지음 | 김영사 | 2020

851회

《오은영 박사가 전하는 금쪽이들의 진짜 마음속》

오은영 지음 | 오온라이프사이언스 | 2022

0 500 1,000 1,500 2,000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의 보고(寶庫), ‘사회과학(300)’

우리는 수많은 단어에 ‘사회’라는 말을 붙이곤 한다. 사람이 둘 이상 모일 때 어떤 형태로든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 즉시 인간집단,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진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늘 사회가 있고, 사회를 설명하려면 언제나 인간이 먼저 설명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는 모호하다. 한편, 사회과학은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사회과학의 관심사는 무수히 많고 현실적이며,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주장한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300: 사회과학’ 서가로 진입하라.

글 박순영(독서 컨설턴트) **참고도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박순영 지음, 미래문화사, 2023)



사회과학의 특징 1: 사회적 삶에 관계된 거의 모든 것을 다룬다

사회과학은 양말 한 켤레같이 자질구레한 것부터 지구적 단위만큼 거대한 것까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사회과학이 포괄하는 학문적 범위에는 경제학·사회학·정치학·법학·교육학 등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 있는 학문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민주주의’, ‘지구환경’, ‘테러리즘’과 같은 주제는 물론이고 작게는 ‘다이어트’나 ‘SNS’, ‘성인용품’, ‘반려동물’, ‘한류’, ‘BTS’와 같은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기도 한다.

사회과학의 특징 2: ‘지금’ ‘현재’ ‘여기’의 당면 과제를 다룬다

사회과학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은, 인간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의적이고 휘발성도 강한 ‘생활 밀착형’ 사안은 단골 소재이다.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A라는 사회적 현상이나 정책에 대해 도서①은 그것이 문제이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주장하는 반면, 도서②는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원인은 다르게 보는데, 도서③은 원인까지는 동의하나 대책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도서④는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도서	현상A	원인 분석	해결 방안	향후 전망
《○○○》	문제	낮은 시민의식	장기적인 시민교육	점진적 개선
《□○○□》	문제	약한 처벌	처벌 수위 강화	단기 개선 가능
《△○○□》	문제	낮은 시민의식	상호 감시 및 현상금 도입	즉각 개선
《○○□○○》	문제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	불필요	자연 소멸

사회과학(300) 도서는 비교적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주장에 맥없이 설득당해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다. 책의 내용과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무턱대고 ‘동의’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이해와 동의는 다른 문제라는 것. 사회과학(300)에 대한 독서법은, ‘쟁점(Issue)’을 균형 있게 읽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문명의 총돌》(새뮤얼 헌팅턴, 김영사, 1997)을 읽은 후에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공하는 《문명의 공존》(하랄트 뮐러, 푸른숲, 2000)이나 《문명의 대화》(세예드 모함마드 하타미, 지식여행, 2002)를 함께 읽으며 비교해 보고 ‘서로 다른 문명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정치·경제 쟁점: 정부의 개입

고전적인 쟁점 하나를 연습 삼아 소개해 볼까 한다. 국가 공권력의 정점인 정부(政府, Government)는 개인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할까. 한쪽 진영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려 하는데(이들은 개인을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표현을 쓴다) 사적 생활의 자유에는 간섭

이나 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여기지만, 공공의 목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의 재정 운용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가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개인 문제’를 무분별하게 사회적 문제로 만든다고 여긴다. 가령 마약중독과 같은 문제는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것을 사회문제로 확대해 정부를 끌어들인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안보와 국내 질서이다. 흉악범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요구한다. 경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관리나 규제는 할 수 있으나 민간의 자체적인 혁신 기회나 유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싶다면 사회과학(300) 책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

사회과학(300)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 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사회과학(300)’에서 챙겨 읽어볼 쟁점들: 출산, 가족, 노인, 정보기술

2018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어느 가족>(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2018)에는 도무지 가족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 독거노인, 폭력 남편을 죽인 아내, 그녀의 내연남, 학대를 받다 탈출한 아이 등이 ‘혈연’이나 ‘혼인’ 없이 만나 함께 살고 있다. “이건 비밀인데 우린 가족이야”라는 주인공의 대사는 ‘정상 가족’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한다. 《이상한 정상가족》(김희경, 동아시아, 2022)은 한국의 가족주의를 비판하며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나란히 보여준다. 출생자는 줄고 있지만 해외 입양은 여전히 아동학대가 주요 뉴스에 오르는 한국 사회. 과연 어느 것이 ‘정상’일까

《퇴적 공간》(오근재, 민음인, 2014)은 어느새 ‘늙은 나라’가 된 한국의 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화’된 노인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상품 가치를 잃은 존재이다. 아직 늙지 않은 인간도 결국은 ‘예비된’ 노인이다. 이 책은 노인문제가 사회적·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상실’과 인문학적 측면에서의 ‘인간 가치’ 사이에 있다고 말한다. 장수의 욕망을 부추겨 이윤을 창출하려는 사업가, 세대 갈등을 부추겨 득표를 저울질하는 정치인, 행복해 ‘보이는’ 노후생활을 제시하는 복지 정책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긴 안목의 정책은 당장의 지지나 득표가 보장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우선 먹기에는 곱감이 달다.” 그리고 직원의 응대를 대체한 키오스크는 노인을 일상적 소비의 경계선 너머로 밀어내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

경제문제는 가족문제로 연결되고, 이것은 인구문제와 노인문제로 이어지며, 노인문제는 정보문제로 이어진다. 사회과학(300) 독서는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기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지금 숨 쉬는 이 세상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후속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도무지 사회과학(300) 서가를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겠다. ●

박순영 •

2016년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독서토론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만들고 독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대학교·도서관 등에서 독서 동아리 멘토 및 토론, 독서, 인문학 등의 강연을 해오고 있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9 한 장의 감성



함께
나누다

국립중앙도서관 NEWS

‘청구도’ 실감미디어월
실감 콘텐츠 공개



‘청구도’ 실감미디어월 전경

국립중앙도서관은 4월 11일(목) 디지털도서관 지하 3층 실감서재에서 ‘청구도’ 실감미디어월 실감 콘텐츠를 처음 공개했다. ‘청구도’ 실감미디어월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구도》의 다섯 번째 판본(1846~1849년경)을 기준으로, 600면의 지도를 OLED 전용 디스플레이에 일대일 크기로 이어 붙여 32K 고해상도 지도로 구현한 실감 콘텐츠이다. 또한 김정호가 《청구도》에 담아 놓은 다양한 지리·역사 정보, 당시의 이상기후, 교통정보 등을 감각적인 디지털 영상으로 구현하였으며, 지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동물 등의 이미지는 마치 조선 시대 마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청구도》는 조선 시대 지리학자 김정호가 1834년부터 1849년경까지 다섯 번에 걸쳐 만든 조선 최고(最高)의 전국(全國) 지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실감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해설이 있는 K-컬처’ 프로그램도 매일 4회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지식정보서비스과 02-590-0591

‘2024년도 납본 유공자’ 표창

국립중앙도서관은 3월 26일(화) 납본* 시행일을 기념하여 우수 납본 출판사 3개 처를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납본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일반도서 부문 신아출판사(대표 서정환), ▲전자책 부문 창지사(대표 김기섭), ▲전자저널 부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다. 납본 유공자는 작년 한 해 동안 법정 기일인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준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에 적극 참여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 납본이란 「도서관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로 196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납본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후대 전승을 위해 영구히 보존된다.

문의 장서개발과 02-590-0642

가상국립도서관 체험관,
스페이스 랩(Space Lab) 개관



스페이스 랩 사진

국립중앙도서관은 3월 29일(금) 디지털도서관 지하 3층에 가상국립도서관 구축을 위한 시범 콘텐츠 체험관(가칭 ‘스페이스 랩(Space Lab)’)을 개관했다. 스페이스 랩(Space Lab)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도서관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미리 선보이는 실험 공간이다. 첫 번째로 공개되는 ‘딱지본* 이야기’는 《춘향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지털 콘텐츠로, 모션 인터랙티브** 기술을 통해 이용자의 두 손의 움직임을 감지해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와 상호 작용하는 체험을 제공한다. ‘딱지본 이야기’는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다.

* 딱지본
: 1910년대 초반, 값이 싸고 부피가 작아 서민들도 휴대하기 편하게 제작된 소설책으로, 표지가 딱지처럼 울긋불긋하고 화려한 색깔과 모양으로 채색되어 딱지본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림
** 모션 인터랙티브(Motion Interactive)
: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제스처를 감지하여 그에 따라 반응하는 기술 또는 경험
***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
: 과제명은 ‘청소년 대상 현실 및 가상 창작·협동·참여형 가변복합 공간 실크로드 콘텐츠 플랫폼’으로 도서관 내 문화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디지털 트윈을 지원하는 창의형 스토리 기반 메타 환경 실크로드 플랫폼 개발·적용을 목적으로 연구 진행 중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314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챗GPT를 활용한 글쓰기 강좌 운영



‘Chat GPT를 활용한 글쓰기’ 강좌 포스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AI 리터러시 아카데미 ‘Chat GPT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5월 23일(목)~24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2차시 4시간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Chat GPT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 ‘MY GPTs로 나만의 챗봇 만들기’로, 노트북이 제공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글을 쓰고 싶은 만 16세 이상 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정원은 30명이다. 모집 기간은 5월 5일(일)까지로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 신청·참여 > 교육/문화프로그램 > 미디어 활용 및 창작 교육에서 신청 가능하다.

■ 교육 개요

- 교육명 Chat GPT를 활용한 글쓰기
- 교육 일시 2024년 5월 23일(목)~5월 24일(금)
오전 10시~낮 12시/총 2차시 4시간
※ 모집 기간: 2024년 4월 15일(월)~
5월 5일(일)

- 모집 인원 생성형 AI를 활용해 글을 쓰고 싶은 도서관
이용자 30명(선발형)
- 교육 방법 대면 교육(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B3))
- 교육 내용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 등
- 교육 강사 전창배(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 교육 세부 내용

차시	교육 일시	강의 주제
1	5. 23.(목) 10:00~12:00	Chat GPT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
2	5. 24.(금) 10:00~12:00	My GPTs로 나만의 챗봇 만들기

문의 지식정보서비스과 02-590-0581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 유산」 개막



민티어 부부가 기증한 <묵죽도>

문의 고문헌과 02-590-057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4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 운영



‘2024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 포스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3월 27일(수), 올해 첫 번째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를 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과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다. 올해는 ‘인공지능 시대, 독서로 꿈꾸는 미래’를 주제로 어린이·청소년 독서지도와 자녀 교육에 대한 강연을 온라인으로 총 4회 진행한다. 첫 강연을 맡은 맹성현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챗GPT의 능력은 ‘독서’의 힘-언어 모델의 기적’을 주제로 챗GPT의 사용 사례와 미래 일자리의 변화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맹성현 교수는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종신 교수와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센터 초대 센터장, 카이스트-삼성SDS AI공동연구센터 초대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오는 6월에는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알파 세대의 준비’를 주제로 맹 교수의 2차 강연이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17

국내 도서관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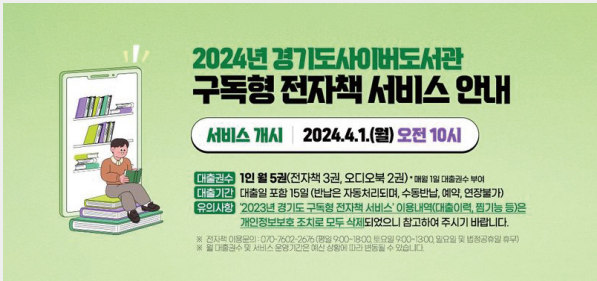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월 11일(목)에 출범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2007년 출범 이후 범부처 도서관 정책에 관한 심의·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부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희윤 신임 위원장은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30년간 재직하며 도서관장과 사회과학대학장, 사회복지대학원장을 비롯해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 발전에 폭넓게 기여해 왔다.

경기도

동시 접속 제한 없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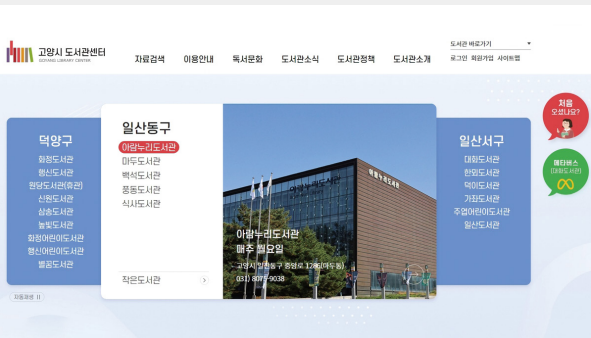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

경기도가 4월 1일(월) 인기 도서나 신간 도서를 동시 접속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는 ‘2024년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도입하는 구독 전자책(오디오 북 포함)은 6만여 종으로, 매달 300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신규 전자책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또 매월 주제별 전자책 추천 서비스도 운영한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회원이라면 1인당 월 5권의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www.libra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도서관 대출 10년 새

430% 급증



(출처: 고양시 도서관센터)

경기 고양시가 시립도서관 운영을 10년간 꾸준히 개선한 결과 도서관 이용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누리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 하루 평균 도서 대출·열람 권수는 1,098권이었으나 올해는 5,820권으로 약 430% 늘었다. 이 서비스는 상호대차·통합반납·지하철역 무인 반납으로 18개 시립도서관의 도서나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고양시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권역별로 차량을 1대씩 배정해 무인 반납함 도서를 매일 회수한다. 이와 동시에 고양시는 각 시립도서관을 꽃, 영어, 예술, 향토문화, 세계 그림책, 창의 공간 등의 주제로 다양화하고 연령별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해 독서인구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미리 만나는

서초책있는거리



도서관의 날에 미리 만나는 ‘서초책있는거리’ 포스터(출처: 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제2회 도서관의 날을 기념해 4월 12일(금)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에서 ‘도서관의 날에 미리 만나는 서초책있는거리’ 행사를 개최했다. ‘서초책있는거리’는 서초구가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우면산부터 한강까지 5색 테마로 조성 중인 ‘서초문화벨트’의 네 번째 거리다.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누에다리까지 약 510m 구간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민국학술원 등 풍부한 인프라도 갖췄다. 이 행사는 5월 25일(토) 본격적으로 열릴 ‘서초책있는거리’의 사전 불업(Boom-up) 행사로, 서초구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개최하는 독서 문화 축제다. 5월 25일 ‘서초책있는거리’ 축제를 시작으로 6월, 9월,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 콘서트, 책 장터, 독서 골든벨 등 계절·테마별 풍성한 독서 문화 축제가 예정돼 있다.

곡성어린이도서관 개관

전남 곡성군은 4월 12일(금) 도서관의 날에 맞춰 ‘곡성어린이도서관’을 정식 개관했다.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결합한 복합 시설로, 1층 저학년 어린이도서관, 2층 가족자료실과 어린이프로그램실 등을 갖췄다. 특히 2층 실감형 동화체험실은 ‘2023년 문

체부 공공도서관 창작공간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한 공간으로, 어린이들에게 미래형 독서 체험을 제공한다. 장서는 어린이도서 1만여 권과 일반 도서 2,000권 등 1만 2,000여 권을 갖췄다. 인공지능(AI) 도서 추천 시스템, 셀프 대출 반납기, 365 예약대출기, 모바일 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구축했다.



곡성어린이도서관 외관(출처: 곡성어린이도서관)

원주시 그림책도서관 개관



원주시 그림책도서관 외관(출처: 원주시청)

강원도 원주시의 그림책도서관이 5월 4일(토) 개관한다. 위치는 명륜동 남산골문화센터 인근이며, 1,509㎡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구조이다. 지하 1층은 영유아를 위한 처음 그림책 자료실, 지상 1층은 이용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각 키움 강의실·상상 누리 다목적실·생각 키움 강의실, 2층은 전 연령이 읽을 수 있는 모두 그림책 자료실과 야외 쉼터로 꾸며졌다. 또한 그림책도서관은 입체북·사운드북·빅북 등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과 영어 그림책을 포함해 1만 6,000여 권을 갖췄고, 미디어아트 갤러리,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 미디어 스케치북을 통해 미디어와 결합한 다양한 도서관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국외 도서관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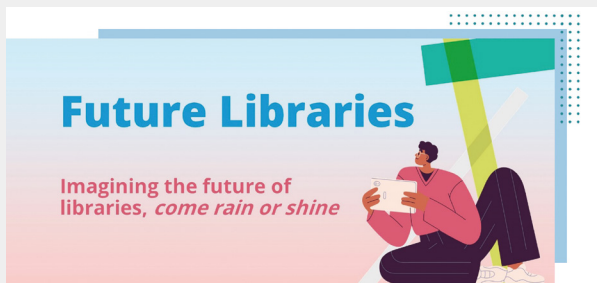
캐나다도서관협회연맹,
2023~2027년도 전략계획 발표



©shutterstock

캐나다도서관협회연맹(Canad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Federation Canadienne des Associations de Bibliothèques, CFLA-FCAB)은 2023~2027년도에 맞춰 전략계획을 업데이트했다. 이 전략계획에는 캐나다 도서관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식 등 캐나다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가 담겨 있다.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
‘미래 도서관: 도서관을 위한 미래 문해력’ 프로젝트 출범



‘미래 도서관: 도서관을 위한 미래 문해력’ 프로젝트
(출처: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는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위기, 허위 정보의 증가 및 불평등 심화와 변화의 시대에 대비하고

자, ‘미래 도서관: 도서관을 위한 미래 문해력(Future Libraries: Futures Literacy for Libraries,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CILIP은 도서관이 여러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도서관과 정보 이용자의 일상생활은 이미 수많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 지원 모델, 정책,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는 다가오는 도전에 맞서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창출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경제 잠재력 실현 위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발표



©shutterstock

싱가포르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MCI)는 2024년 예산위원회(Committee of Supply, COS) 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제 도약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내용에는 인재 양성,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는 2023년 12월 부총리 로렌스 왕(Lawrence Wong)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 AI 전략(NAIS 2.0)’과 함께 추진된다.



국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
(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책을 한 권 선물하는 사람이다.
- 에이브러햄 링컨

